

# 『동국통감제강』에 나타난 홍여하의 역사인식

박인호\*

## 차례

- I. 머리말
- II. 『동국통감제강』의 편찬과 서술
  - 1. 편찬과 간행
  - 2. 구성과 서술
- III. 『동국통감제강』에 나타난 역사인식
  - 1. 상고사의 체계와 역사지리에 대한 인식
  - 2. 사론에 나타난 역사관
- IV. 맺음말 - 사학사적 의의 -

### 【국문초록】

洪汝河(1620-1674)는 기자조선으로부터 통일신라 말까지의 우리나라 역사를 강목의 정신을 바탕으로 편년 순에 따라 편찬한 『東國通鑑提綱』을 편찬하였다. 홍여하는 『동국통감제강』에서 역사의 정통과 비정통에 대해 춘추필법을 엄격히 적용하려고 하였다. 중국 역대 제왕의 사망 기사, 홍망, 일식기사 등을 적어 韓·申 양국의 역사를 같이 적는 체제를 갖추려고 하였으며, 이는 춘추의 기술 정신을 이으려는 것이었다. 유교적 관점에서 踰年稱元の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정리하고, 誕妄한 것은 아예 서술에서 제외하였다. 홍여하는 당시 『東國通鑑』을 축약하는 수준의 역사 편찬에서 한걸음 나아가 유교적 정통관, 춘추필법의 서법을 적용하고 이의 일관된 관점에서 상고사를 정리하였다.

홍여하는 조선초기 『동국사략』과 『동국통감』을 통해 공인된 단군-기자-위만-

\* 금오공과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교수

사군-이부-삼한-삼국의 상고사 체계를 기자-마한-신라 정통론 중심의 상고사 체계로 바꾸었다. 흥여하는 기자와 위만 및 진번을 요동지역에까지 확장하여 이해하였기 때문에 사료에 나타나는 지명의 혼효를 지명이동설로 설명하였으며, 이어지는 고구려에 대해서도 이전시대의 비정에 비해 요동으로 확대하여 이해하였다. 신라와 가야에 대한 지리비정도 고구려가 요동으로까지 확대되어 인식되면서 활동 공간이 확대되어 나타났다.

『동국통감』과 비교하여 『동국통감제강』에서 생략된 사론들을 보면 일관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추가된 사론들을 보면 기자와 주 무왕의 관계를 군신이 아니라 빈주 관계로 격상시키고 기자를 독립적인 교화를 베푼 인물로 설명하여 조선에서의 중화 문화의 탄생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조선과 중국의 역사 전개 의 동질성을 통해 현재 조선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표착, 난생 등 유교적 관점에서 황탄하다고 여겨지는 사항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한편 東川王 位宮과 冊丘儉의 침략, 故國壤王 伊連과 故國原王 釗의 관계 등 기사에서는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론의 추가에는 흥여하가 체득하였던 춘추·정통·도덕·윤리적 논리가 바탕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주제어

洪汝河, 『東國通鑑提綱』, 『彙纂麗史』, 殷太師, 馬韓-新羅 正統論, 地名移動說, 賓主關係, 春秋筆法

## I. 머리말

이 논문은 기자에서 통일신라 말까지의 역사를 다룬 洪汝河의 『동국통감제강』을 사학사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흥여하에 대한 연구는 흥여하가 남긴 사서인 『동국통감제강』과 『휘찬여사』를 사학사적인 측면에서 다룬 한영우의 연구에서 시작하였다. 이후 흥여하에 대해 사회사상적 측면, 문학·경학적 측면, 철학적 측면, 문헌

학적 측면 등 다방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홍여하에 대한 사학사적 연구 가운데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휘찬여사』를 다루고 있으며, 『동국통감제강』을 살펴보려는 이 연구와 직접 관련 있는 사학사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홍여하를 다룬 논문 가운데 한영우와 김선화의 연구는 홍여하가 편찬한 『동국통감제강』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 참고가 된다. 특히 한영우의 연구는 『동국통감제강』에 대한 최초의 사학사적 연구로, 사서로서의 주요한 특징을 정리하고 있으나 범례의 소개에 집중하고 있다.<sup>1)</sup> 김선화의 연구는 사론의 출입을 다루고 있으나 제외된 사론과 추가된 사론 전체를 다루지는 못하였다.<sup>2)</sup> 장윤석의 연구는 주로 범례를 다루었으나 『동사찬요』와의 비교에 중점이 있었다.<sup>3)</sup>

여기서는 이러한 선학의 연구를 바탕으로 『동국통감제강』의 편찬에 관련된 서술 방식과 편찬 의도, 그리고 자료로 참조하였던 『동국통감』과의 비교를 통해 『동국통감제강』이 가지는 사학사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동국통감』과의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 범례와 사론을 살펴보았다는 점, 홍여하의 역사지리인식을 해명한 점, 유교적 도덕 논리의 확산을 사론 출입의 이유로 본 점 등에 일정한 연구 의의가 있을 것이다.

1) 한영우, 「17세기 중엽 영남남인의 역사서술 - 홍여하의 휘찬여사와 동국통감제강」, 『변태섭박사 화갑기념 사학논총』, 삼영사, 1985; 『조선후기사학사연구』, 일지사, 1989, 135-158쪽.

2) 김선화, 「홍여하의 역사인식」,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1-59쪽.

3) 장윤석, 「17세기 영남 남인 오운과 홍여하의 역사인식」,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1-45쪽.

## II. 『동국통감제강』의 편찬과 서술

### 1. 편찬과 간행

『동국통감제강』은 홍여하(1620-1674)<sup>4)</sup>가箕子朝鮮으로부터統一新羅末까지의 우리나라 역사를 강목의 정신을 바탕으로 편년 순에 따라 편찬한 사서이다. 書頭의 책명은木齋家塾東國通鑑提綱으로 되어 있다. 책의 표제를‘東史提綱’으로 적은 것도 있고<sup>5)</sup> 손자인洪大龜가 쓴行狀과權愈가 쓴碣銘 등에도‘동사제강’이라는 표현한 것으로 보아 처음 제목을‘동사제강’으로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sup>6)</sup>

홍여하의 역사서 편찬 작업은 행장에 의하면 1639년(인조 17) 『회찬여사』의 편찬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려시대사를 다룬 『회찬여사』의 실제 완성된 연도는 확실하지 않으나<sup>7)</sup> 홍여하가 젊

4) 생몰연대에 대해서는 사전이나 기존 연구마다 조금씩 다른데 여기서는洪大龜가 쓴行狀과權愈가 쓴碣銘의 기록을 기준으로 하였다(『목재선생문집』 권11, 「부록」, 〈贈通政大夫弘文館副提學知製教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行通訓大夫司諫院司諫府君行狀〉, 〈碣銘 并序〉).

5) 도산서원 장본도 표지의 서명을‘東史提綱’이라고 적고 있으며, 일부 도서관에서도 외제를‘동사제강’ 혹은‘동국통감’ 등을 적기도 한다.

6) 『목재선생문집』 권11, 「부록」, 〈贈通政大夫弘文館副提學知製教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行通訓大夫司諫院司諫府君行狀〉.

7) 홍여하의 행장에는 1639년 『회찬여사』를 완성한 것으로 적고 있으나 1940년대 황재 이구에게 고려사의 편찬을 말하고 있으므로 이 시기에 완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洪汝河, 『목재선생문집』 권4, 「書」, 〈答李大方策〉). 1659년 정도응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려사를 완성하였으며, 50권이 된다고 적고 있다. 또한 정도응이 편찬하고 있던 명신록을 완성하였는지를 문의하고 있다. 따라서 행장에서 전하는 것은 범례를 만든 것이고 『회찬여사』를 완성한 시기는 1659년경 이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洪汝河, 『목재선생문집』 권4, 「書」, 〈答鄭鳳輝〉. “麗史垂完 爲秩者五十 前輩所當留意未就者 幸而辨此 倘來榮辱 看破空已久矣 名臣錄 想亦斷手邪 何時相聚 各出二家言 揚確而上下之邪”).

은 시기에 가지고 있었던 고려사를 보는 시각을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동국통감제강』은 집필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어 장년의 홍여하가 동국의 역사를 정리한 결과물이다. 홍여하는 1659년(효종 10) 경성판관 재직시 왕이 내린 구언교지에 따라 장문의 응지소를 올렸는데 이 상소가 문제가 되어 1660년(현종 1) 충청도 황간 신평현으로 유배되었다. 유배에서 풀려나면서 홍여하는 1660년 고향인 상주 율리에 돌아왔다. 자신이 거주하는 곳은 산택재라고 이름짓고 호를 목재라 하였다. 1670년에는 예천 복천면에 거처를 옮겨 존성재라고 이름지었다. 이후 상주 율리와 예천 복천을 오가면서 학문과 저술에 심혈을 기울였다.<sup>8)</sup> 행장에 의하면 『동국통감제강』은 1672년(현종 13) 편찬된 것으로 적고 있다.<sup>9)</sup> 따라서 『동국통감제강』은 역사에 관심을 가진 이래 오랜 시간의 온축을 거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행장에 의하면 만년에 『동국통감』을 바로 잡아 책을 편찬하고 동사제강으로 이름 붙였으나 이 책이 완성되기 전에 죽었다고 적고 있다.<sup>10)</sup>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책을 『동국통감』과 비교해 보면 고려 통일

8) 홍여하가 해배후 생활하였던 율리에 대해 경기도 파주군 율리(한영우) 혹은 경상도 군위군 대율리 한밤마을(김현영)로 비정하는 의견들이 있으나 홍여하는 부림홍씨 함창파의 후예로 그가 거주하였던 율리는 상주목 영순면 율리(현 문경군 영순면 울곡리 岳林洪氏 마을)를 말한다.

9) 홍여하는 동국사의 편찬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미 1940년대 활재 이구에게 피력하고 있다(洪汝河, 『목재선생문집』 권4, 「書」, 〈答李大方集〉. 李渠, 『활재집』 권2, 「書」, 〈答洪伯源 別紙三〉). 또한 이휘일이 보낸 서간에서 “동사는 정돈해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손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편지를 받자오니 모든 일에는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東史果有合整頓處 而無人犯手 今承來諭 足知凡事皆有待也)”라고 하여 동사의 편찬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서간은 1667년 작성한 것으로 전한다(『존재선생문집』 권2, 「서」, 〈答洪百源〉). 이 연도가 정확하다면 홍여하가 『동국통감제강』의 편찬 작업을 시작한 것은 1667년 이전으로 볼 수 있다.

10) 『蘆洲先生文集』 권4, 「行狀」, 〈木齋洪先生行狀〉. “嘗以爲史者褒貶勸懲之書 王法之所寓

이후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미완성이라고 하여도 틀린 말은 아닌 것이다.<sup>11)</sup>

목판본 『동국통감제강』은 1786년(정조 10) 후손인 洪錫胤, 洪錫嘯에 의해 13권으로 간행되었다. 이 책의 출판에 이르는 경과 과정에 대해서는 안정복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선생께서 돌아가신지 이제 113년이 되었다. 이 책이 비록 만들어지기는 하였으나 세상에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선생의 자손들이 대대로 보존하고 지켜오다가 士友들에게 교정을 구하고 재물을 거두고 모임을 만들어 판각하기에 이르렀으니 모두 14권이다. 일을 맺게 되자 선생의 玄孫 錫胤이 그 종제인 上舍 錫嘯에게 시켜 정복에서 서문을 청하였다. 정복도 역시 일찍이 교정의 일에 참여했으며 일찍부터 선생의 풍도를 우러러보았으므로 여찌 감히 글재주가 없다고 사양할 수 있겠는가.<sup>12)</sup>

안정복은 출판된 책이 14권이라고 적고 있으나 현재 이 책은 1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3)</sup> 안정복이 이를 14권이라고 적은 이유는 잘 알

而大統之所係也 吾東方史記散漫不綱 大失鑑戒之義 (중략) 晚年又取東國通鑑 頗加彙用綱目編年法 名曰東史提綱 其次第節目 皆有法度 未及成書而先生歿 使後人復有大事記 將誰使續之恨”

『葛庵先生文集』 권26, 「行狀」, 〈通訓大夫司諫院司諫木齋先生洪公行狀〉. “晚年 又取東國通鑑 頗加彙括 用綱目編年法 名曰東史提綱 其次第節目殊可觀 未及成書而公沒矣 使後人復有大紀將誰使續之恨”

11) 자료를 취집하는 『회찬여사』와는 달리 『동국통감제강』은 『동국통감』을 정통과 춘추의 서법을 기준으로 정리하였기 때문에 『동국통감』의 고려 부분도 정리할 필요는 있었다.

12) 『동국통감제강』, 〈목재가숙동국통감제강서〉, 526쪽. “先生之歿 今百十有三年矣 是書雖存 世莫能知 先生子孫 世世保守 求校於士友 斂財結社 鋟諸文梓 凡十四卷 工告訖 先生玄孫錫胤 使其從弟上舍錫嘯 求弁文於鼎福 鼎福亦嘗與聞於考校之役 夙仰先生之風矣 其敢以辭拙辭乎”

13) 13권 7책은 1·2, 3·4, 5·6, 7·8, 9·10, 11·12, 13으로 편제되어 있다.

수 없다.

초간본은 규장각을 비롯하여 주요 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책에 대한 수요가 일정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규장각에는 정조의 수택본으로 口訣이 달려 있는 본(규 4357)도 있다.

현대 영인으로는 1976년에 동양문화사에서 영인하였으며, 다시 1986년 규장각본(규 5330)을 『한국사서총간』 1에 수록 영인하였다.<sup>14)</sup>

## 2. 구성과 서술

이 책의 체재를 보면 13권 7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수제는 木齋家塾東國通鑑提綱이며, 판심제는 東國通鑑提綱이다. 이 책은 크게 조선기, 삼국기, 신라기로 나누어진다. 조선기는 상편의 은태사와 하편의 기준왕으로 나누어진다. 삼국기는 권2 신라 혁거세에서 권9 문무왕의 삼국통일 이전까지, 신라기는 권10 문무왕 8년(당 총장 2년, 669)<sup>15)</sup>의 삼국통일 이후부터 경순왕까지 대상으로 하였다.

권	표제	수록 왕명
序文		
凡例		
目次		
1	조선기 상, 하	殷太師,箕準王

14) 『東國通鑑提綱』, 13권 7책, 1786년 간행; 동양문화사 영인, 1976; 규장각본, 『韓國史書叢刊』 1(東國史略·東史纂要·東史補遺·東國通鑑提綱), 驪江出版社, 1986.

15) 흥여하는 신라의 기년에 유년 칭원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동국통감』의 문무왕 9년과는 달리 문무왕 8년으로 적고 있다.

2	삼국기	赫居世·南解君·儒理王上
3	삼국기	儒理王下·脫解王·婆娑王·祇摩王·逸聖王·阿達羅王
4	삼국기	伐休王·奈解王·助賁王·沾解王·味鄒王·儒禮王·基臨王·訖解王上
5	삼국기	訖解王下·奈勿王·實聖王·訥祇王·慈悲王·炤知王上
6	삼국기	炤知王下·智證王·法興王·眞興王·眞智王·眞平王上
7	삼국기	眞平王下·善德女王上
8	삼국기	善德女王下·眞德女王·太宗武烈王上
9	삼국기	太宗武烈王下·文武王上
10	신라기	文武王下·神文王
11	신라기	孝昭王~憲德王
12	신라기	興德王~神德王
13	신라기	景明王~敬順王

『동국통감』에서는 外紀의 위치에 있었던 箕子朝鮮을 『동국통감제강』에서는 本紀 제1권 朝鮮紀(上·下)에 수록하고 있다. 또한 외기이지만 단군에서 동국사를 시작하였던 『동국통감』과는 달리 아예 표제를 은태사로 기록함으로써 은연중에 역사의 정통을 기자에 두고 있다. 동국사의 기술은 기자에서 신라 말까지 편년 순에 따라 정리하였는데, 기자→마한→신라로 이어지는 흐름만을 정통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참위로 보았다. 『동국통감』을 저본으로 하였으나 엄격한 명분론과 정통관을 적용한 것이라고 하겠다.

연기를 서술하는 것도 『동국통감』에서는 중국 연기를 앞세우고 신라, 고구려, 백제의 순으로 기술하였으나 『동국통감제강』에서는 신라 연기를 대자로 쓰되 중국의 연기는 쌍행으로 신라 연기 앞에 기술하고 있으며

고구려와 백제 연기는 신라 뒤에 쌍행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 동국을 구별하되 신라 정통을 고수하는 입장에서 기술한 것이다.

안정복이 쓴 서문에 따르면 홍여하는 “金富軾의 『삼국사기』는 古記의 편린들만 모았기 때문에 소략하고 잘못되어 전혀 史法이 없으며, 『동국통감』은 조금 취할 만하지만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sup>16)</sup>는 불만에서 이 책을 편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책의 기본 재료는 『동국통감』이다. 여러 자료를 취합하되 주자 강목의 체례를 본받아 이 책을 만들었다. 홍여하는 일찍부터 역사 책은 褒貶과 勸懲을 보이는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외설스럽게 뒤섞여 어떻게 世道와 治道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sup>17)</sup> 『동국통감제강』은 포폄과 권징을 위해 우리나라 전 역사에 강목의 원칙을 적용하려고 하였으나 서술형식에서는 아직 주자 강목의 전형적인 강목체 형태를 보이지 못하였으며, 연도별로 사건을 서술하는 편년체 수준에 머물렀다.<sup>18)</sup>

홍여하의 생각이 『동국통감제강』에 구현된 모습에 대해 안정복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이제 이 책을 읽어보니 순서와 절목이 모두 법도에 맞다. 기사를 正統의 첫 머리로 시작하고, 마한이 계승하는 것으로 하되 위만은 참적으로 내쫓았다. 마한이 망하기 전까지는 삼국의 임금을 모두 신하의 예에 따라 쓰고 왕

16) 『동국통감제강』, 〈목재가속동국통감제강서〉, 527쪽. “後又言金氏三國史記 只憑古記 斷爛之傳 疎畧訛謬 全無史法 東國通鑑 稍有可取 而亦多可議”

17) 『葛庵先生文集』 권26. 「行狀」, 〈通訓大夫司諫院司諫木齋先生洪公行狀〉. “嘗以爲史者 褒貶勸懲之書 王法之所寓 而大一統之所係也 吾東方史法 狼曠 有薦紳先生難言之實 其何以裨世教資治道乎”

18) 안정복이 쓴 『동국통감제강』의 서문에서도 이 책은 강목의 예를 따랐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외형적인 형태를 보면 포폄의 서법을 적용하면서 기사의 요지를 적은 綱과 해당 기사의 전말을 적은 目을 같이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의 서술체제를 전형적인 강목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이라고 칭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실로 사가의 올바른 예이다. 계통이 바로잡히면 僞와 僞가 저절로 분간이 되고 참과 위가 분간이 되면 名義가 명백해지는 것이다. 『춘추』가 이루어지자 亂臣賊子가 두려워한 것은 명의가 명백해져서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sup>19)</sup>

즉 안정복의 말에 따르면 흥여하는 정통과 참위를 분간하는 춘추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겼으며, 이 책도 그러한 점에 중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동국통감제강』의 기술 원칙을 보여주는 범례이다. 범례는 총 13개조로 되어 있다. 그 가운데 정통론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옛 역사 책은 모두 단군에서 적기 시작하였는데 나는 지금 기자 이하로 끊었다. 이것은 사마천의 『사기』에서 황제 이하로 끊은 예를 따른 것이다.<sup>20)</sup>

은태사 기자의 『홍범』은 사마천의 『사기』 「미자세가」에 부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내가 지금 「은태사기」를 만들었으므로 『홍범』을 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서전』의 내용을 적어 오는 것은 참람한 것 같으므로 사마천의 『사기』에 수록된 것을 적었다. 다만 그 문장에서는 같고 다른 점이 조금 있다.<sup>21)</sup>

옛 역사 책에는 기준이 남쪽으로 도망한 이후 위만조선이라고 칭하였다.

19) 『동국통감제강』, 〈목재가속동국통감제강서〉. “今讀是書 次第節目 皆有法度 始於箕子 爲正統之首 繼以馬韓而黜衛滿之僞 馬韓未亡之前 三國之君 皆用臣例 不得稱王 此實史家之正例也 統正而僞僞自分 僞僞分而名義得定 春秋成而亂臣賤子懼者 其不以名義之得定而然歟”

20) 『동국통감제강』, 「목재가속동국통감제강범례」. 一 舊史皆起自檀君 今斷自箕子以下 依遷史斷自黃帝以下例

21) 『동국통감제강』, 「목재가속동국통감제강범례」. 一 殷太師箕子洪範 遷史 附載微子世家 今作殷太師紀 則洪範不容不載 而剽取書傳 似涉僞撰 故取遷史所錄而書之 其文少有異同云

그런데 이것은 역사가가 말하는 정통의 격식을 잃어버린 것이다. 나는 「조 선기」에서 기준이 정통을 이은 것으로 하였다.<sup>22)</sup>

마한이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는 삼국의 시조에 대해 모두 신하의 예를 적용하여 왕이라고 칭하지 않았다.<sup>23)</sup>

흥여하는 역사적 정통을 기사에서 시작하고 있으며, 또한 기준왕의 馬韓이 이를 계승한 것으로 기술하였는데, 당시 유행하였던 대부분의 사략형 사서들이 단군으로부터 시작하였던 것에 비추어보면 단군관이 후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역사의 정통이 기사와 馬韓을 거쳐 다시 新羅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삼국을 그 크기로 논한다면 신라의 처음 무렵은 고구려만큼 크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신라가 나라를 연 것은 고구려와 백제보다 앞섰으며, 또한 삼국의 끝은 신라에 의하여 통일되었으므로 우리나라의 역사가들은 모두 신라를 고구려와 백제의 앞에 놓았다. 지금 살펴보건대 고구려가 요 땅에 나라를 세웠으며, 2백 여년이 지난 후에 동쪽의 평양으로 옮겼으나 그 때의 역사는 증거할 만한 것이 충분하지 못하다(출 이문진 소찬). 온조는 마한을 멸망시켜 기씨의 계통을 끊어버렸으니 매우 어질지 못하다. 그러나 박혁거세의 큰 덕은 기자의 계통을 이을 만하다. 그의 말은 마한을 높일 줄을 알았으므로 족히 취할 만하다. 역사를 다룬 글은 최치원의 역대기에 나오는데 참고하여 믿을 만하다. 그러므로 신라를 정통으로 하고 두 나라는 부용으로 한다.<sup>24)</sup>

22) 『동국통감제강』, 「목재가속동국통감제강범례」. 一 舊史 箕準南奔之後 稱衛滿朝鮮 殊失史家正統之體 今以朝鮮紀 係之箕準

23) 『동국통감제강』, 「목재가속동국통감제강범례」. 一 馬韓未亡 三國始祖 皆用臣例 不得稱王

24) 『동국통감제강』, 「목재가속동국통감제강범례」. 一 三國論其大小 則新羅之初 不如高句麗之大 然新羅開國 先於麗濟 而其終也 又爲新羅統一 故東史諸家 皆以新羅冠於麗濟之上 今按高句麗 立國遼界 過二百餘年 然後東徙平壤 其史不足爲據 出李文眞所撰 溫祚滅馬韓 絕箕氏之祀 不仁甚矣 而赫居世之盛德 可以承箕子之統 其言知尊馬韓 有足取焉

박혁거세의 큰 덕이 기자의 계통을 이을 만하고 마한을 받들었던 점을 근거로 흥여하는 신라를 역사의 정통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역사를 도덕적으로 평가하려는 논리가 확대되면서 『동국통감』의 삼국을 균등하게 다루려는 데서 벗어나 마한-신라 정통론을 극대화시킨 것이다. 따라서 사서의 기술도 新羅를 주로 하고 高句麗와 百濟는 여기에 附記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또한 온조가 마한을 멸망시킨 것에 대해 『동국통감』에서는 백제의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반면<sup>25)</sup> 흥여하는 백제군 온조가 마한을 습격하여 멸한 것을 특기하여<sup>26)</sup> 서법을 통해 온조에게 찬탈의 죄를 나타내려고 하였다.<sup>27)</sup> 이는 『동국통감』에서 보이던 백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명분과 도덕의 입장에서 더욱 극대화한 것이다.<sup>28)</sup>

그런데 서술 형태에서 당시의 역사서와는 구별되는 특징적인 사항을 『동국통감제강』의 범례에 밝히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사서이지만 중국의 사건에 대한 기록 여부이다.

『춘추』는 노나라를 다룬 역사 책이지만 주나라의 일도 기록하였으며, 그 외 열국의 일까지 모두 갖추어 적었다. 『통감강목』 등과 같은 책도 해외 나라의 일을 많이 적고 있는데 이것은 역사가의 필범이다. 우리나라 옛 역사 책들은 중국의 일을 적지 않았으므로 역사가의 큰 강령에서 본다면 소홀하고 잘못된 점이 매우 심하다. 그래서 지금 『춘추좌전』의 예에 따라 중국 역대 제왕의 사망 기사를 적고 또한 흥망의 모습을 간략히 적어 역사가의 격식을 갖추었다.<sup>29)</sup>

史文則出於崔文昌致遠歷代記 差可考信 故以新羅主之 而兩國附焉

25) 『동국통감』 1, 경인문화사, 1987, 39쪽.

26) 『동국통감제강』, 547쪽. “秋七月 百濟君溫祚 襲馬韓滅之”

27) 『동국통감제강』, 548쪽. “書法 以著溫祚篡奪之罪”

28) 박인호, 「전통시대의 백제인식 - 백제의 흥망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역사교육논집』 46, 역사교육학회, 2011, 257쪽.

29) 『동국통감제강』, 「목재가숙동국통감제강범례」. 一 春秋 魯史而記周事 至於列國之事

일식은 춘추에 반드시 적었는데 이는 하늘의 경계를 받들기 위한 것이다. 서거정은 이를 빼고 적지 않았다. 지금 『삼국사기』의 일식 기록에 따르면 『강목』의 기사에 고증하여 합치되는 것은 적었다.<sup>30)</sup>

즉 이전 우리나라 사서들이 중국의 일을 적지 않은 것에 반해 『동국통감제강』에서는 역대 제왕의 사망 기사 또는 홍망의 모습을 간략히 적어 체례를 갖추려고 하였다. 일식 기사도 하늘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강목의 기사와 비교하여 합치되는 것을 적고 있다.

이러한 동일 해 중국사의 기술과 일식 기사의 보존은 춘추의 정신을 본받아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다룬 역사서에서 중국의 역사적 사실을 간략하게나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동국통감』이나 혹은 각종 사략류 사서에서도 보이지 않던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우리 역사를 보는 폭을 넓혀 놓았다. 뒤에 한중 합사의 책들이 나오게 되지만 우리나라 사서 가운데 가장 먼저 중국의 역사에 주목하여 이를 내용 속에 수렴한 책이다. 『동국통감제강』의 은태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중국 자료가 인용되고 평가된 것으로 이러한 이해의 결과이다.

그리고 역사의 서술에 있어서는 춘추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였다.

『춘추』에서는 사망에 대해 부고하였으면 적고 부고하지 않았으면 적지 않았다. 그런데 『좌전』에서는 초나라와 월나라의 상사도 모두 적었다. 이제 춘추의 예에 따라 정통 제왕의 사망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으로 적고, 남북조와 오대 제왕의 사망에 대해서는 『좌전』의 예에 따라 목에다 간략히 적었다.<sup>31)</sup>

亦皆備述 如通鑑綱目等書 多載海外國事 此史家之法也 東國舊史 不記中國之事 史家大綱領 疏謬特甚 故今依左傳例 書中國歷代帝王崩殂 因略書其興亡大致 以存史家之體

30) 『동국통감제강』, 「목재가속동국통감제강법례」. 一 日食 春秋必書 謹天戒也 徐氏闕而不書 今悉據三國史所記日食 訂諸綱目而合者 書之

31) 『동국통감제강』, 「목재가속동국통감제강법례」. 一 春秋崩卒 告則書 不告則不書 傳

한나라 광무제와 당나라 태종 이후는 춘추의 정월을 표시하는 예에 따라 황정월이라고 특별히 적었다.<sup>32)</sup>

중국사는 단순히 제라고만 호칭하였는데, 춘추에서 왕에다 천이라는 명칭을 더하는 예에 따라 지금 당나라 아래로는 황제라고 특별히 적었다.<sup>33)</sup>

임금이 대를 이으면 해를 넘겨서 원년이라고 칭하는 것이 예에 바른 것이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는 모두 앞의 임금이 돌아가신 해에 바로 원년이라 칭하여 춘추의 대의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권근이 『동국사략』에서 해를 넘겨 원년이라고 칭하여 그 잘못을 바르게 하였다. 그러나 서거정은 『동국통감』에서 김부식의 잘못을 지적하였으면서도 오히려 억지로 따랐으니 그 그릇됨이 심하다. 이제 모두 바르게 고쳤다.<sup>34)</sup>

인용문들은 구체적인 서법의 적용에 관련된 내용들로 기술에서의 일정한 서술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정통 제왕의 사망은 강으로 적고 비정통인 남북조와 오대 제왕의 사망은 목에다 간략히 적는 형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춘추의 기술 예에 따라 황제의 정월을 특서하며, 당 이하의 정통 군주에게는 황제라고 적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왕의 기년을 표시하면서 어떠한 방식을 취하는가는 서법상 대표적인 논쟁거리였다. 흥여하는 유년 칭원을 취하여, 『삼국사기』와 『동국통감』에서 즉위년 칭원을 적용한 것을 비판하였다. 흥여하는 이전에 권근이 이미 『삼국사기』의 卽位年 칭원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해당 연기

則楚越之喪 皆書之 今依經例 正統帝王之崩 特書於綱 南北朝五代崩殂 略述於目 以倣傳例

32) 『동국통감제강』, 「목재가속동국통감제강범례」. 一 漢光武唐太宗以後 特書皇正月 依春王正月例

33) 『동국통감제강』, 「목재가속동국통감제강범례」. 一 中國史 但稱帝 今自唐以下 特書皇帝 依春秋加天於王例

34) 『동국통감제강』, 「목재가속동국통감제강범례」. 一 國君嗣世 踰年改元 乃禮之正 金富軾三國史 皆以先君薨年改元 大失春秋之義 故權近史略 踰年稱元 以正其失 徐氏通鑑 既論斥富軾而強從之 其謬甚矣 今悉改正

를 모두 수정하였던 예를 다 알고 있으면서 『동국통감』에서 다시 김부식을 따라 즉위년 칭원을 적용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유년 칭원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동국통감제강』은 고구려의 유리왕, 신라의 남해왕, 백제의 다루왕 이후 부분에서 『삼국사기』와 『동국통감』과 재위년도가 1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역사를 보는 정신에 있어서는 유교의 합리적 관점과 도덕주의 관점에서 역사에 접근하여 誣妄하거나 음난한 것에 대해서는 아예 서술에서 배격하였다. 특히 삼국 시조의 탄생 설화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습속에서 나와 잘못 전하여 矯誣妄誕하게 되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줄여 적었으며 황탄함이 심한 것은 아예 삭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sup>35)</sup> 특히 신라 소지왕후조에 나오는 내용은 본사에도 없는 저잣거리의 낭설을 수록한 것으로, 誣枉하여 아예 삭제한다고 밝히고 있다.<sup>36)</sup>

흥여하는 이 책을 편찬하면서 『동국통감』을 바탕으로 하면서 내용을 수정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기사의 내용에서는 『동국통감』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술 과정에서 『춘추좌전』, 『자치통감강목』, 『사기』, 『삼국지』 등의 서적을 참조하여 정리하고 있다. 특히 『삼국사기』는 『동국통감』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이용되었다.<sup>37)</sup>

35) 『동국통감제강』, 「목재가속동국통감제강범례」, 一 三國始祖誕生之說 出於愚俗傳訛 矯誣妄誕 史法不載 略加刪節而書之 其荒怪尤甚者 削之

36) 『동국통감제강』, 「목재가속동국통감제강범례」, 一 新羅照智王后一條 本史無之 亦出於俚俗浪傳 其爲誣枉 事證甚明 故今削之

37) 헌덕왕 사망조 기사를 보면 『동국통감제강』, 694쪽. “丙午 唐 寶曆二年 十七年 秋 七月 命牛峯太守白永 徵漢山北諸州郡人一萬 築浪江長城三百里 ○ 冬十月 王薨 諡曰 憲德 葬泉林北 [古記云 在位十八年 寶曆二年丙午卒 新唐書 長慶寶曆間 羅王彥昇卒 而資治通鑑及舊唐書皆云 大和五年卒 豈其誤耶]”라고 적고 있다. 그런데 이 쌍행 주석 기사는 『삼국사기』에 수록되었던 것으로 그 뒤 『삼국사절요』나 『동국통감』에서는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흥여하는 『삼국사기』를 참조하여 이 주석을 다시 기재하였을 것이다.

홍여하는 『동국통감제강』을 집필하면서 이를 위한 상세한 범례를 마련하였으며, 역사의 정통과 비정통에 대해 춘추필법을 엄격히 적용하려고 하였다. 중국 역대 제왕의 사망 기사, 홍망, 일식기사 등을 적어 한중합사의 체례를 갖추려고 하였으며, 이는 춘추의 기술 정신을 이으려는 것이다. 유교적 관점에서 유년 칭원의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정리하고, 무망하거나 탄망한 것은 아예 서술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이 홍여하는 당시 『동국통감』을 축약하는 수준의 역사 편찬에서 한걸음 나아가 유교적 정통관, 춘추필법의 서법을 적용하고 일관된 관점에서 상고사를 정리하였다. 홍여하의 『동국통감제강』이 나오면서 이후 성리학에 입각한 도덕적 포폄사관과 정통관, 그리고 춘추에 입각한 서법 원칙을 역사서 전체에 적용하고 이의 일관된 관점에 따라 동국사를 서술하는 새로운 역사서 편찬의 흐름을 낳았다.<sup>38)</sup>

### Ⅲ. 『동국통감제강』에 나타난 역사인식

#### 1. 상고사의 체계와 역사지리에 대한 인식

##### 1) 상고사 체계

『동국통감제강』에서 역사 기술은 은태사에서 시작하지만, 내용에서는 동방 제국 가운데 하나로 단군을 설정하고 위치를 평양에 비정하였다. 즉 조선에 선행하는 제국으로 동장, 동진, 숙신, 단군을 설정하고 있

38) 성리학에 입각한 정통관과 춘추의 서법 원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서로는 유계(1607-1664)의 『여사제강』이 1630년대 후반에 편찬되어 나왔으나, 상고기부터 삼국에 이르기까지 전시기를 다루면서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는 홍여하의 『동국통감제강』이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난다.

다.<sup>39)</sup> 이에 따라 단군은 정통의 선행 왕조라기보다 동방 제국의 하나로 설정되는 셈이다.

단군조선은 나라가 천여 년이 지속되었으나 은말 나라가 끊어지고 군주가 없어 기자가 와서 그 땅에 살면서 기자조선이 된 것으로 보았다.<sup>40)</sup> 기자는 은말 주 무왕이 은의紂를 치게 되자 의리상 신하가 될 수 없어서 조선으로 갔으며, 요수를 넘어서 평양에 도움을 정하고 거주하였다고 보았다.<sup>41)</sup> 그런데 기자의 동행은 주 무왕의 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은이 망하고 태사가 동쪽으로 가려고 하니 무왕이 허락하였다는 것이다. 사마천은 홍범의 진술이 조선에 봉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으나 홍여하는 홍범의 진술도 조선에 온 다음에 君臣이 아니라 賓主의 예로서 올린 것으로 보았다.<sup>42)</sup> 이는 기자의 성립과 통치,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도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해석한 것이다.

기자가 조주한 것을 사마천은 주 무왕이 죽기 전으로 보았으나 홍여하는 주 무왕이 죽고 성왕이 즉위하였을 때로 보았다. 왜냐하면 기자는 주에 칭신하지 않았는데 조주하였겠는가는 논리였다. 이 역시 기자의 조주를 인

39) 『동국통감제강』, 531쪽. “唐虞之際 東方諸國 有曰東長 曰東眞 曰肅慎 曰檀君 眞長皆不知所在 肅慎在今咸吉等州境 檀君所都在今平壤 皆朝鮮舊地也 檀君與堯竝立是爲檀君朝鮮 開國千餘歲 至殷武丁世 國絕無嗣”

40) 『동국통감제강』, 531쪽. “周十年三祀殷太師 至自周初 檀君朝鮮 傳國千餘歲 迄殷季 國絕無主 故太師來居其地”

41) 『동국통감제강』, 531쪽. “太師遂東行 殷之士庶樂律醫藥百工五千餘人 從之 渡遼水 邑于平壤而居之”

42) 『동국통감제강』, 531쪽. “按司馬遷 作宋世家附箕子 乃以陳範在封朝鮮之前 恐不然 太師之東 非由周武之命 猶泰伯南竄 非出於古公之命也 太師既至東 人尊而君之 亦猶泰伯至吳 荊蠻義之 從而歸之爾方 周師之未至也 太師固曰 商其淪喪 我罔爲臣僕 武王必知之矣 殷既亡 太師意決東 武王亦許之 已定不臣用賓主之禮 故武王來訪 而太師固無嫌於陳範也 不然將以君臣見乎 太師不爲也 將以賓主見乎 禮未之講也 太師曷爲而遽見武王也 由是觀之 太師陳範在主朝鮮之後也 審矣”

정하되 제후의 조와는 달리 미자가 송에 봉해진 다음 중국이었던 송에 조주한 것으로 본 것이다.<sup>43)</sup> 동쪽으로 돌아온 후 기자가 죽고 그 자손들이 후대를 계승하였다가 이후 위만에 의해 나라가 찬탈되었는데 『동국통감』에서는 이를 위만조선으로 적었으나 흥여하는 이러한 표현은 統體를 잃은 서술이라고 비판하고 역사의 정통은 기준이 이은 것으로 보았다.<sup>44)</sup>

흥여하는 기자의 후손인 기준이 망한 다음에 지역적으로는 북쪽의 위만과 남쪽의 마한으로 나누어지지만 그 역사적 정통은 남쪽 마한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기준왕이 죽은 다음 자손들이 왕위를 이었으며, 남방의 여러 나라들은 모두 마한에 복종하여 해남성국을 이루었다고 적고 있다. 그 반면에 나라를 흠쳤던 위만은 삼제도 되지 않아서 자손들이 주멸하였다고 적고 있다.<sup>45)</sup> 조선 유학자들이 교화를 베푼 기자를 존송하게 되면서 그 귀결로서 기자-마한 계승을 주장하게 되었으며, 흥여하는 이를 역사정통론으로 연결시킨 것이다.

효무황제 때 사군 설립과 효소황제의 이부 설치 후 현도가 이택의 칙령을 받아 요서 북쪽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동부도위를 설치해 별도로 영동 7현을 관장하게 하며 또 나머지는 모두 이부의 관리 하에 두었는데, 제후국들이 그 사이에 섞여 거주하였다고 보았다.<sup>46)</sup> 그런데 남쪽의 마한

43) 『동국통감제강』, 534쪽. “按司馬遷以箕子朝周 在武王崩前 要其終而言之耳 以左氏攷之 叔虞之封唐也 箕子曰叔虞之後 必大 是時太師在周親見叔虞之封 而有是言 麥秀之詩 舊都毀壞 知其在微子移封之後也 太師之不臣周也 而曷爲朝周也 春秋滕子朝魯 書曰來朝 太師之朝 其禮異於諸侯之朝也歟 太師東還而薨 墓在平壤 杜預曰 箕子墓在梁國蒙縣者 意仲之塚 或其子孫之塚也歟”

44) 『동국통감제강』, 534쪽. “舊史 衛滿朝鮮 殊失統體 今係之箕準”

45) 『동국통감제강』, 531쪽. “按是時 朝鮮中分 南屬馬韓 北屬衛滿 王準薨子孫承襲稱王 南方諸國邑皆服事馬韓 爲海南盛國 箕子正統綿綿尙存後 王薨 立年代史無傳焉 然衛滿逞詐竊國 未及三世 子孫誅滅 而馬韓開國垂統至二百年 噫 天道洵不爽哉”

46) 東部都尉가 통치한 단대령 이동 지역에 대해 한백겸이 자비령으로 추정된 것을 들린 것으로 보고 칠령·추령 등지로 보았다. 『동국통감제강』, 538쪽. “玄菟在洛陽

이 이부에 속한 이후에는 풍속이 점점 각박해져서 범금도 60여 조로 늘었을 뿐만 아니라 인현의 가르침이 변하였다는 것이다.<sup>47)</sup> 홍여하는 마한이 북쪽으로 온 다음에는 기자의 가르침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지적하여 자연히 신라로 정통이 넘어가게 된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홍여하는 신라가 들어섰으나 성립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마한이 있었기 때문에 서법상 혁거세는 거서간이라고 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48)</sup> 이에 따라 홍여하는 연기 표시도 중국 한 선제 오봉 원년을 소자 쌍행으로 앞세우고 신라의 연기를 대자로 표시하되 馬韓年代不可考라 적어 정통국가인 마한이 아직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방식은 마한이 온조에 의해 멸망당하고 역사의 정통이 완전히 신라로 넘어온 남해군 4년에 까지 이어진다.<sup>49)</sup> 남해군 5년 이후의 연기표시는 중국의 연기를 소자 쌍행으로 앞세우되 신라의 연기를 대자로 기술하고 이어 고구려와 백제의 연기를 소자 쌍행으로 적어 신라가 역사의 정통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남해군 5년 이후에는 신라, 고구려, 백제 각 군주의 칭호에 王을 부여하였다. 신라 남해군 4년까지는 부여, 고구려, 백제의 군주도 君이라고 표현하였다.<sup>50)</sup> 이러한 표기 방식은 삼국을 무정통으로 보아 중국의 연기와 신라, 고구려, 백제의 연기를 차례로 쌍행으로 적고 혁거세 이후 아예 왕이라고 표기하였던 『동국통감』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東北四千里 單大嶺今鐵嶺楸嶺等地 久庵以爲慈悲嶺者 誤也”

47) 『동국통감제강』, 538쪽. “後玄菟郡爲夷貊所侵 徙治遼西北 以沃沮濊貊屬樂浪 後以單大嶺以東 境土廣遠 置東部都尉 別主嶺東七縣 餘在二府所管 然諸侯國 猶錯居其間 南韓諸國爲馬韓所統 而馬韓屬二府時 節詣郡朝謁 自是俗稍益薄 犯禁至六十餘條 仁賢之化變矣”

48) 『동국통감제강』, 539쪽. “書法 時馬韓統五十四國而王之 故赫居氏 不敢稱王 而稱居西干”

49) 『동국통감제강』, 『목재가속동국통감제강법례』. 一 馬韓未亡 三國始祖 皆用臣例 不得稱王

50) 소자로 연기를 적는 곳에서는 琉璃王과 溫祚王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으나 본문에 서는 춘추의 서법에 따라 부여, 고구려, 백제의 군주를 君이라고 적고 있다.

삼국 통일 이후에는 신라기로 중국의 연기를 소자 쌍행으로 앞세우되 신라 역대 왕의 연기를 대자로 적고 있다. 이 부분은 『동국통감』도 신라의 연기를 적고 중국의 연기를 소자 쌍행으로 적고 있어 신라의 삼국통일을 중대한 역사적 계기로 보았던 점은 동일하다. 이후 신라의 정통은 고려 태조에 의해 멸망한 경순왕 8년(후당 청태 2년, 935)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후삼국의 전개에서 견훤의 즉위에 대해 『동국통감』에서는 진성여주 임자년 무진주를 근거로 군사를 일으켰을 때부터 연기를 기산하여 효공왕 경신년을 견훤 9년으로 적고 있으며, 그리고 다음해인 신유년을 『동국통감』에서는 견훤 10년, 궁예 원년으로 적고 있다. 이에 반해 흥여하는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왕이라고 칭한 효공왕 경신년을 견훤 원년으로 적었으며 다음 해인 신유년에는 견훤 2년, 궁예 원년으로 적고 있다.<sup>51)</sup> 궁예도 이미 진성여왕 신해년 복원에서 군사를 일으켰던 점을 감안한다면 견훤과 궁예를 달리 대하였던 『동국통감』과는 달리 흥여하는 견훤과 궁예 모두 즉위하여 왕을 칭한 때를 기준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일관된 원칙을 지킨 셈이다.

조선초기 『동국사략』에서 마련된 단군-기자-위만-사군-이부-삼한-삼국으로 이어지는 상고사의 체계는 『동국통감』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공인되었는데, 이를 흥여하는 기자-마한-신라 정통론 중심의 상고사 체계로 바꾸어 놓았다. 흥여하의 주장은 조선초기 관부를 중심으로 한 삼국 균등 무정통론과는 달리 마한-신라 정통론을 역사서에 체계화하였다는 데 사학사적인 의의가 있다.<sup>52)</sup> 이러한 체계를 범례를 통해 이론적으로 설명

51) 『동국통감』 1, 260·261쪽. 『동국통감제강』, 707·708쪽.

52) 박인호, 「전통시대의 신라인식」, 『역사교육논집』 40, 역사교육학회, 2008, 338-339쪽.

하고 동국사의 서술에 적용한 것이 『동국통감제강』이다.

## 2) 역사지리에 대한 인식

홍여하는 조선의 명칭에 대해 張晔이 주장한 汕水로 인해 朝鮮이라는 칭호가 생겼다는 설명을 비판하고, 아침에 해가 떠올라 만물이 선연히 생기가 있다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보았다. 해와 관련되어 있음은 고구려와 신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sup>53)</sup>

조선의 지리에 대해서는 당우 때 동방은 여러 군소 국가의 형태로 있었는데 그 가운데 속신은 함·길주, 단군은 평양에 있었다고 보고 이곳은 모두 조선의 옛 땅이라고 주장하였다.<sup>54)</sup> 단군은 영변에서 시작하여 평양에 도읍을 두었다가 한양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던 것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단군과 관련된 지명으로 단군이 내려온 太白山은 妙香山(지금 寧邊), 후에 옮긴 도읍인 白嶽은 漢陽 혹은 熙川白山이라고도 하는데 옛 蓋馬山, 산신이 된 阿斯達山은 海州九月山에 비정하였다.<sup>55)</sup>

한편 평양을 중심으로 단군-기자를 전개시킨 『동국통감』과는 달리 단군과 기자를 이어서 이해하지 않던 홍여하는 평양과 한양의 단군은 國絶無嗣하게 되고<sup>56)</sup> 이에 기자가 평양에서 국가를 세운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상고시기 기자는 평양을 도읍으로 정하고 요동에 이르는 넓은

53) 『동국통감제강』, 531쪽. “按朝鮮者 取朝日出 而萬物鮮然 有生意之義也 如高句麗者 日高而麗乎天也 句者夷之發聲 猶句吳於越之稱也 新羅者 日新出而萬象森羅也 國在海東 故皆取日出爲義 張晔謂取汕水 名爲朝鮮者謬矣”

54) 『동국통감제강』, 531쪽. “唐虞之際 東方諸國 有曰東長 曰東眞 曰肅慎 曰檀君 眞長皆不知所在 肅慎在今咸吉等州境 檀君所都在今平壤 皆朝鮮舊地也”

55) 『동국통감제강』, 531쪽. “太白山 一名妙香山 在今寧邊 白嶽在今漢陽 或曰熙川白山 乃古之蓋馬山也 峯巒洞壑與楓嶽爭雄 爲國中名山第一 阿斯達山 今海州九月山”

56) 『동국통감제강』, 531쪽. “檀君與堯竝立是爲檀君朝鮮 開國千餘歲 至殷武丁世 國絶無嗣”

영토를 차지한 것으로 보았다.<sup>57)</sup> 기자가 송에 조회한 다음에 동쪽을 돌아왔다가 죽었는데 묘는 평양에 마련한 것으로 보았다.<sup>58)</sup>

주가 쇠하고 여러 제후들이 왕을 칭하자 기자의 40대 후손인 조선후도 왕을 칭하였다. 흥여하는 왕을 칭한 것이箕否 때의 일이라는 주장에 대해 조선후 때 이미 왕을 칭한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기자의 세력이 정치적 합법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려고 하였다.<sup>59)</sup>

한편 조선 왕은 왕을 칭한 후 점점 교학해져서 연이 장수 秦開를 보내어 서쪽의 땅을 취하여 滿潘汗을 경계로 하였는데<sup>60)</sup> 만반한은 지금의 遼陽省에 비정하였다.<sup>61)</sup> 흥여하는 기자가 멀리 요동까지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연과의 전쟁 이후 요양을 경계로 국경선이 정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 때는 한 고조가 노관을 연왕으로 봉하여 서쪽 공략에 나서서 진번 등지에 장현을 쌓도록 하였으나 너무 멀어서 涇水를 경계로 확정하였는데, 흥여하는 이 때의 패수를 遼陽省 西遼河, 지금의 八州의 땅에 비정하였다. 흥여하는 통상 패수를 대동강이라고 지칭하는 것에 대해 평양은 본래 요양의 옛 명칭인데 기자가 도움을 정하면서 이름을 옮겨 칭한 것

57) 『동국통감제강』, 531쪽. “太師遂東行 殷之士庶樂律醫藥百工五千餘人 從之 渡遼水 邑于平壤而居之”

58) 『동국통감제강』, 531쪽. “太師東還而薨 墓在平壤 杜預曰 箕子墓在梁國蒙縣者 意仲之塚 或其子孫之塚也歟”

59) 『동국통감제강』, 534쪽. “丁酉 周顯王四十五年 朝鮮侯稱王 朝鮮侯太師四十代孫也 周衰諸侯相王 曰燕 曰齊 曰楚 曰趙 曰魏 曰韓 曰秦 凡七大國 而秦最強 燕最近東國 故易王之僭號也 朝鮮侯 欲伐燕 以尊周 大夫禮諫而止之 尋自稱王 按朝鮮侯 始稱王 史失其名 或以稱王爲箕否之事 然箕否薨年在秦始皇十七年辛未 距周顯王丁酉爲九十年 意 始稱王者其箕否之先代歟”

60) 『동국통감제강』, 535쪽. “赧王二十七年 秦君稱帝 三十一年 燕昭王滅齊 是時朝鮮王驕虐 燕遣將秦開 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潘汗爲界 朝鮮遂弱”

61) 『동국통감제강』, 535쪽. “按滿潘汗 今遼陽省 漢稱眞番郡 唐號忽汗州 徐廣曰 遼東省 番汗縣”

이며 패수도 역시 대동강에다 옮겨 칭한 것으로 보았다.<sup>62)</sup> 지명이 옮겨졌다는 이 주장은 전통시대의 평면적인 역사지리 비정의 수준에서 본다면 특이한 주장이었으며, 조선후기 역사지리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거론되었던 지명이동설의 선구적 주장이었다. 현대 역사학에서도 지명이동설은 고대 지명의 위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학문적 분과의 하나를 이루고 있다.

효혜황제 때 연왕 노관이 흉노로 도망가자 연인 위만이 동쪽으로 패수를 건너 진의 옛 공지인 요양에서 조선을 지키게 되기를 청하자 기준은 봉지를 내려 주었는데 도리어 기자조선을 침공하였다. 그리하여 기준은 남쪽으로 나아가 金馬郡에서 마한을 세웠다.<sup>63)</sup> 위만은 주위의 소읍을 침략하고 진번과 임둔을 복속시켜 조선의 옛 땅을 차지하였으며, 그 영토가 요양에서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게 되었다.<sup>64)</sup> 그런데 홍여하는 특이하게도 위만이 도읍을 정한 왕검을 요동에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패수를 압록강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였다. 홍여하는 패수를 요양성에 있는 서요라고 보았기 때문에 왕검의 위치를 요양에 비정하고 있는 것이다.<sup>65)</sup> 홍여하는 위만조선을 우리

62) 『동국통감제강』, 535쪽. “按泚水 在遼陽省西遼河 甚衆 泚水其一也 遼東數千里 今八州之地 舊屬朝鮮 悉爲箕氏所有 周末爲燕略取置吏築鄣 秦時空其地 屬之外徼 漢興還屬朝鮮 復以泚水爲界 東人稱大同江 亦曰泚水 蓋以平壤 本遼陽舊號 而移稱於箕都 故泚水亦移稱於大同耳”

63) 『동국통감제강』, 535쪽. “孝惠皇帝時 燕王緡反入匈奴 燕人衛滿亡命聚黨千餘人 東走出塞 渡泚水居秦故空地上下鄣 (遼陽省樂浪縣有雲鄣) 請藩衛朝鮮 王準喜拜爲博士 賜以圭封之百里 滿誘亡黨益衆 乃遣人詐告準 漢兵十道至欲入宿 衛遂襲王城 王戰敗 率其左右官人 走入海居韓地 金馬郡國號曰馬韓”

64) 『동국통감제강』, 536쪽. “馬韓爲衛滿所隔 不能自通於漢 漢以天下初定 遼東太守約滿爲外臣 保塞外諸國 無使寇邊諸國 欲入朝勿禁以故 滿得以兵威財物 侵降其旁小邑 眞番臨屯 皆來服屬 盡有朝鮮故地 西自遼陽東至海 方數千里”

65) 『동국통감제강』, 535쪽. “按遷史 衛滿醜結蠻夷服 走出塞居秦故空地 稍役屬眞番朝鮮蠻夷 及故燕齊亡命者王之 都王險 應劭註地理云 遼東有險瀆縣 朝鮮王舊都 臣瓚云險地

역사에서 정통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그 위치도 요동 일원으로 올려놓았다.

홍여하의 지명이동설과 기자 및 위만의 강역에 대한 주장은 비록 기자의 위상을 강조하고 위만을 정통에서 제외하려는 데서 나온 주장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자와 위만의 영역이 요동에까지 미치거나 중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었다. 이는 당시 관찬의 역사서에서 보이지 않던 상고기의 국가성장에 대한 독창적인 주장이었다.

효무황제 원봉 2년 위만이 죽고 손자인 우거가 있었는데 사신이었던 섭하의 살해 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공격을 받았으며, 원봉 3년 우거가 죽고서 한나라에 항복하게 되었다. 조선을 평정하게 되자 황제는 낙랑, 임둔, 현도, 진번의 4군을 설치하게 되었다. 홍여하는 낙랑은 평양, 임둔은 강릉, 현도는 함흥에 비정하고 특별히 진번은 요양에 비정하였다.<sup>66)</sup> 이에 따라 홍여하는 발해의 영역을 설명하면서 挹婁의 옛 땅은 定理府가 되었으며 定州와 瀋州를 거느렸다고 주장하였으며, 瀋州는 周末의 滿清泮이 자 漢대의 眞番郡이었다고 비정하였다.<sup>67)</sup>

효소황제 시원 5년 평주와 동부도독부를 설치하였다. 이 때의 위치에 대해 홍여하는 서개마=마자수 동, 폐수=청천강, 점제=연안, 수성=수

在樂浪郡泚水之東(中國人稱鴨綠亦曰泚水 蓋誤 別而云或曰王險城 古叢人王險所居 亦曰王儉城))”

66) 『동국통감제강』, 537쪽. “孝武皇帝時 屢出師 伐北匈奴 征西南夷 威震四海 元封二年 遣將東征 遂定朝鮮故地 爲四郡 初衛滿死 傳至孫右渠 所誘漢亡人滋多 而旁衆國 欲朝漢 輒壅閼不通 漢帝使涉河誘 右渠不肯奉詔 何去至界上 臨泚水 使御刺殺送何者 裨王長 馳歸報天子 上爲其名美 卽不詰 拜何爲遼東東部都尉 右渠怨何 發兵襲殺何 帝怒募罪人 擊朝鮮 (중략) 朝鮮相路人相韓陶將軍王峽亡降 元封三年 尼谿相參 使人殺右渠 降漢 遂定朝鮮 故地爲樂浪臨屯玄菟眞番四郡 樂浪郡治 朝鮮縣 (今平壤) 臨屯郡治 東曉 (曉音移) 縣 (今江陵府) 玄菟郡治 沃沮縣 (今咸興地) 眞番郡治 靑 (音撒) 縣郡 (今遼陽地)”

67) 『동국통감제강』, 695쪽.

안, 증지=증산, 대방=용강, 소명=소양강, 열수=한강, 낙랑=낙양 동북 5천리에 비정하였다.<sup>68)</sup>

금마에 자리잡은 마한은 이후 진한과 변한의 복속을 받아 정통의 국가를 유지하게 되었는데 삼한의 위치에 대해서는 한백겸의 남북이원론적 발전관을 수용하고 있다.<sup>69)</sup> 삼한의 땅으로 마한은 백제, 진한은 신라, 변한은 가야에 비정하였는데, 북쪽의 사군이부와는 분리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조선중기 한백겸의 설을 채택한 것이다.<sup>70)</sup>

다만 삼한의 위치에 대한 비정에서는 한백겸의 주장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한이 온조에 의해 멸망된 다음 후예들이 다시 옛 도읍인 평양으로 돌아가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마한이라는 명칭이 수백 년 동안 칭해졌으며, 또한 최치원이 평양을 마한이라고 한 데에는 유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변한은 진한의 남쪽으로 지금의 전라좌도를 차지하였으므로 최치원이 백제를 변한이라고 한 것이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다고 보았다.<sup>71)</sup> 대신 권근이 평양을 변한으로 비정한 것은 잘못이라

68) 『동국통감제강』, 537쪽. “玄菟屬縣 有西蓋馬上殷台高顯侯城遼陽 樂浪郡屬縣 有辨(音男)邯(音甘)泚水含資粘蟬(音提)遂城增地帶方靑望海冥列口長岑屯有昭明鏤方提奚渾瀾吞列東臚 西蓋馬在馬訾水東 泚水今清川江 粘蟬今延安 遂城今遂安 增地今甑山 帶方今龍岡 昭明今昭陽江 列水今漢水 樂浪在洛陽東北五千里”

69) 『동국통감제강』, 531쪽. “按是時 朝鮮中分 南屬馬韓 北屬衛滿”

70) 『동국통감제강』, 537쪽. “韓百謙曰 我東方在昔自分爲南北 (하략)”

71) 이 때문에 『동국통감』에 수록된 삼한설에 대한 권근의 사론에서 최치원의 주장에 대해 비판한 구절을 흥여하는 『동국통감제강』에서 생략하고 있다.

『동국통감』 1, 25쪽. “權近曰 三韓之說 互有不同 然朝鮮王準 避衛滿之亂 浮海而南 開國 號馬韓 至百濟溫祚 立遂并之 今之益州有古城 至今尺稱爲箕準城 則馬韓之爲百濟無疑矣 辰韓 新羅始祖赫居世 所起之地 新唐書曰 卞韓在樂浪之地 又曰平壤古漢之樂浪郡 則辰韓之爲新羅 卞韓之爲高句麗 亦無可疑 後漢書 以爲卞韓在南 辰韓在東 馬韓在西 其謂卞韓在南者 蓋自漢界 遼東之地而云爾 非謂卞韓 在辰馬二韓之南也 崔致遠 因謂馬韓麗也 卞韓百濟也 誤矣”은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동국통감제강』 536쪽. “權近曰 三韓之說 互有不同 然朝鮮王準 避衛滿 入南海 開國 號馬韓 今益州有古城 人稱爲箕準城 其地後爲百濟 辰韓新羅赫居世所居之地 新唐書曰

고 비판하였다. 또한 한백겸의 삼한사군설은 동방 천고의 남다른 식견을 보인 것이지만 마한이 다시 평양에 돌아간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특히 동한 200년간 평양은 고구려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진번은 옛 東眞의 나라로 潘汗을 경계로 하여 이름을 얻었는데 한백겸이 진번을 지금 경기·황해 이북에 비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하였다.<sup>72)</sup>

한백겸이 삼한을 한반도 남단에 국한시킨 것에 반해 흥여하는 고구려가 초기에 평양을 장악하지 못하였던 점에 주목하여 마한 세력이 복귀하여 다시 확보한 것으로 보았다.<sup>73)</sup> 이는 기자와 마찬가지로 상고기의 세력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특이한 주장이다.

이와 같이 흥여하는 한백겸의 이원적 발전관을 수용하면서도 초기 기자와 위만을 요양에 비정하고 있으며, 진번도 경기 황해가 아니라 요양에 비정하여 상고사를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조선초기 『응제시주』 이래 상고시기 영역을 확대해 보려는 흐름을 계승한 측면이 있다.<sup>74)</sup>

한편 신라 성립 이후 지리비정은 주로 쌍행의 각주로 표시하고 있다. 이 내용은 『동국통감』에 없던 것으로 흥여하가 자신의 역사지리적 공간

下韓在樂浪之地 又曰 平壤古漢樂浪郡 則辰韓爲新羅 而下韓爲高句麗也”

72) 『동국통감계강』, 537쪽. “按馬韓 既爲溫祚所滅 其連遷裔胄還居舊都 依樂浪爲邑國 蓋朝鮮舊民思太師之德 樹其苗裔 而存其祀焉 是時句麗居在鴨江西北 而馬韓爲句麗之與國 兵勢增盛 句麗征戰馬韓 常領兵助之 魏書曰 桓靈之末 韓滅強盛郡縣 不能制 明帝景初中 遣兵渡海 襲馬韓滅之 蓋馬韓滅而復存 還居舊都 因稱馬韓 經數百年 故崔文昌因以平壤爲馬韓 其說有自來矣 且弁韓在辰韓之南 兼管湖嶺之間 今全羅左道數邑之地 皆屬弁韓 文昌以百濟爲弁韓者 其說亦不爲無據 權陽村以平壤爲弁韓之說 可謂謬之 甚矣 韓久庵三韓四郡 不相參入之說 爲東方千古隻眼 然不知馬韓還居平壤 而東漢二百年間 平壤不屬句麗 眞番以古東眞之國 界潘汗而得名 韓氏以今京畿黃海以北當之 殆攷之未審也”

73) 『동국통감계강』, 537쪽. “平壤旁邑有韓 始城馬邑城 此其馬韓所都歟”

74) 한영우, 『조선전기 사학사 연구』, 서울대출판부, 1981, 53-59쪽.

관에 따라 『동국통감제강』을 서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가운데 고구려의 초기 영역과 관련하여 고구려 시조 고주몽의 즉위 직전에 있었던 夫餘는 『요사』의 기록을 이용하여 通州(봉천 개원)에 비정하고, 沸流水는 溲州(요에서 설치하였으며 조선 평양 서쪽)의 서북 380리에 있었던 것으로 비정하고 있다. 이는 홍여하가 고구려의 초기 중심지를 개원 아래의 요동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고구려가 점령한 행인국은 태백산 동남(지금의 영변)으로 비정하였다.<sup>75)</sup> 고구려 태조왕 때 동옥저를 쳐서 국경을 개척하면서 동쪽으로는 滄海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薩水에 이르렀는데 이때의 살수를 지금의 청천강 안주에 비정하였다.<sup>76)</sup> 이와 같이 홍여하가 고구려 초기 중심지를 요동에 비정하고 차츰 평안도로 확대되어 간 것으로 생각한 점은<sup>77)</sup> 주몽의 초기 중심지를 성천에 비정하였던 조선전기의 고구려 인식관<sup>78)</sup>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라의 초기 영역에 관련하여 신라 시조 30년 낙랑 침입 기사를 통해 청송 이북은 낙랑에 속하였던 것으로 보았다.<sup>79)</sup> 홍여하는 말갈의 존재에 대해 여러 기사의 상이점에 의문을 표시하는 것에 그친 『동국통감』의 기사를 전채하되<sup>80)</sup> 별도로 각주 기사를 통해 말갈은 맥의 별종으로 열국의

75) 『동국통감제강』, 541쪽.

76) 『동국통감제강』, 555쪽.

77) 박인호, 「전통시대의 고구려·발해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374쪽.

78) 박인호, 「조선전기 지리서에 나타난 역사지리인식과 특성」, 『조선사연구』 10, 조선사연구회, 2001; 『조선시기 역사가와 역사지리인식』, 이회문화사, 2003, 115-141쪽.

79) 『동국통감제강』 541쪽.

80) 『동국통감』 1, 34쪽. “史氏按 靺鞨之地最北 高句麗紀有曰卒本地連靺鞨 然新羅百濟常有靺鞨之患 豈靺鞨能越高句麗而侵二國乎 百濟紀曰 國家東有樂浪 北有靺鞨 其亡也 地爲新羅渤海靺鞨所分 新羅紀亦曰 靺鞨地連阿瑟羅州 是不知別有一種 介於沃沮濊貊之間

사이에 잡거해 있는 존재로 보았다.<sup>81)</sup> 온조에게 멸망당하기 직전 마한의 마지막 저항지였던 錦峴은 錦山, 圓山은 渾天嶺 西쪽에 있었던 것으로 비정하였다.<sup>82)</sup>

한편 가야의 성립과 관련하여 가락국은 후에 金官國으로 개칭하였으며 영역은 동쪽으로 黃山江, 동북으로 伽倻山, 서남으로 바다와 智異山에 이르는 것으로 비정하였다. 그리고 오가야의 阿羅는 咸安, 古寧은 咸昌, 大伽倻는 高靈, 星山은 星州, 小伽倻는 固城에 비정하였다.<sup>83)</sup> 가야의 전 영역을 지리산에서 함창에 이르는 것으로 비정하고 있다.

한편 신라의 성장과 함께 영토를 다투는 전투가 이어졌는데 한 헌제 초평 원년 경오에는 백제가 신라의 서쪽 국경이 된 원산을 공격하였다.<sup>84)</sup> 한 건안 17년 임진에 骨浦, 漆浦, 古浦 3국이 신라를 공격해 와서 내해왕이 격퇴시켰는데 골포는 창원, 칠포는 칠원으로 비정하였다. 한 헌제 건안 23년 백제가 공격한 신라의 獐山城은 慶山에 비정하였다.<sup>85)</sup>

홍여하가 상고시기를 기술하면서 지명의 혼효를 지명이동설로 설명한 점, 상고기 기자와 위만 및 진번을 요동에까지 확장하여 이해한 점, 위만을 역사의 정통에서 제외하고 왕검을 요양에 비정한 점, 상고기 기자의 동향을 세력이동설로 설명한 점 등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고정된 관점에서 보았던 이전의 역사지리 비정과는 달리 유동적이며 다양한 지역으

乎 抑噓道越海而侵二國乎 未可詳也”

81) 『동국통감제강』, 543쪽. “觀扶餘東徙 便知靺鞨南徙 觀百濟說北有靺鞨 便知嶺西一帶 爲靺鞨占據 觀新羅初北界至不出小白山 便知長嶺大嶺爲竹嶺一帶 蓋靺鞨貊人之別種 猶春秋赤狄潞戎 雜居於列國之間也”

82) 『동국통감제강』, 548쪽.

83) 『동국통감제강』, 554쪽.

84) 『동국통감제강』, 568쪽. “圓山 在渾穿嶺西 錦山境”

85) 『동국통감제강』, 573쪽.

로 비정해 나갔다는 점에서 독특한 주장이었다. 또한 홍여하는 삼국기에서 각 국의 지명 정보를 각주로 제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공간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지명 정보의 부기는 조선중기 이후 각 지역의 역사와 지리에 대해 고조되었던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 2. 사론에 나타난 역사관

『동국통감제강』에서 한 단을 낫추어 표시한 사론은 모두 142편(사론 139편과 총평 3편 포함)이다. 사론의 대부분은 이 책의 저본이라고 할 수 있는 『동국통감』에서 가져 온 것이다.

통일신라 말까지 기술된 『동국통감제강』에 맞추어 『동국통감』의 해당 부분까지 수록된 사론을 살펴보면 총 140편이다. 140편은 김부식 25, 권근 45, 이침 3, 고려사절요(이제현 1, 사신 1) 2, 신근안 62, 총평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국통감제강』과 비교하면 기존의 『동국통감』의 사론 140편 가운데 19편이 탈락하고 121편이 재수록되었다.<sup>86)</sup> 『동국통감』을 크게 축약한 형태로 『동국통감제강』을 편찬하면서도 사론 부분에서 총 140편 가운데 121편을 재수록한 것은 역사적 사안에 대한 평가의 논리가 『동국통감』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만 『동국통감제강』에 새로 홍여하의 안설 19편과 한백겸의 지리 관

86) 사론을 재수록하면서 일부 자구의 수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론 내용을 그대로 재수록하고 있다. 다만 『동국통감』 전체사론번호 3 권근왕, 23 이침왕, 55 권근왕, 56 신등안, 60 김부식왕, 95 김부식왕, 108 신등안 등은 일부 구절을 탈락시키고 있다. 또한 『동국통감』 사론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면서도 臣等按, 史氏按이라는 표시를 그대로 두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동국통감』 1, 263쪽. “臣等按本紀阿達羅王 薨無嗣 國人立脫解王孫伐休爲王 今以景暉爲阿達羅王遠孫 未可詳也”과 『동국통감제강』 710쪽. “臣等按 本紀阿達羅王 薨無嗣 國人立脫解王孫伐休爲王 今以景暉爲阿達羅王遠孫 其以外戚近屬得立厥”에서 보이듯이 ‘분명치 않다’는 것을 ‘외척 근속으로서 즉위한 것’으로 수정하여 놓았다.

런 2편 등 총 21편의 사론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추가된 안설이 대부분 상고기 시기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것은 상고기에 대한 생각이 나 입장이 『동국통감』과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는 『동국통감』과의 비교를 통해 『동국통감제강』의 사론에 보이는 홍여하의 역사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동국통감』에 수록되었다가 『동국통감제강』에서 탈락된 사론

일련 번호	연기	집필자	내용	진체사론 순번호
1	단군조선	신등안	단군이 1천48년의 수명을 누렸다는 것은 의심스러우며 요와 함께 즉위하였다는 것도 의심스러움. 권근의 역년이 천년을 지난 것이라고 말한 것이 옳음	1
2	기자조선	신등안	쇠퇴하는 은을 버리고 성현의 법을 제작하였다는 범엽의 기록이나 인현의 교화가 기자에서 비롯되었다는 함허자의 기록은 믿을 수 있음	2
3	진한 변한	신등안	삼한 70여 국의 기록이 전하지 않아 상고할 수 없음	4
4	신라 시조 5년 한 감로 원년	권근왈	신라인들이 당을 섬기면서 二聖이라는 칭호를 추칭한 것임	7
5	신라 시조 5년 한 감로 원년	신등안	이성이라는 칭호는 이전에 이미 있었음	8
6	한 원시 4년 신라 시조 61년 남해왕 원년 고구려 유리왕 23년 백제 시조 22년	신등안	권근이 주장한 유년 칭원이 옳으나 김부식의 기록에 따라 즉위년 칭원을 함	18

7	한 건무 23년 신라 유리왕 23년 고구려 민중왕 3년 백제 다루왕 19년	권근왈	민중왕이 무휼의 상사에도 불구하고 연회를 열고 사냥함	22
8	한 건안 13년 신라 내해왕 13년 고구려 산상왕 12년 백제 초고왕 43년	신등안	연우가 여염집에서 음란한 짓을 함	40
9	진 태강 7년 신라 유례왕 3년 고구려 서천왕 17년 백제 고이왕 53년 책계왕 원년	신등안	왕도는 인천을 근본으로 삼고 신의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고구려의 서천왕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그러짐	46
10	제 영원 2년 신라 소지왕 22년 지증왕 원년 고구려 문자왕 10년 백제 동성왕 22년	신등안	신라왕이 지나치게 거동하고 여인을 맞이함	63
11	당 정관 19년 신라 선덕여주 14년 고구려 보장왕 4년 백제 의자왕 5년	신등안	안시성주는 안록산의 반란군을 막아낸 張巡과 비교해도 뛰어난 호걸임	79
12	당 현경 5년 신라 태종왕 7년 고구려 보장왕 19년 백제의자왕 20년	권근왈	계백이 처자를 죽이고 출전한 것은 잔인한 일임	85
13	당 건봉 원년 신라 문무왕 6년 고구려 보장왕 25년	신등안	김부식이 천개소문을 평하면서 재사라고까지 말한 것은 잘못임	93
14	당 총장 원년 신라 문무왕 8년 고구려 보장왕 27년	권근왈	연개소문이 죽자 두 아들이 권력을 다투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됨	96
15	신라 원성왕 14년 당 정원 14년	신등안	김생의 필법이 신묘한 경지에 들어갔음	112
16	신라 경명왕 2년 후량 정명 4년 견훤 27년 궁예 18년 고려 태조 원년	신등안	궁예는 스스로 얻었다가 스스로 잃은 것임	127
17	신라 경명왕 5년 후량 용덕 원년 견훤 34년 고려 태조 4년	김부식 왈	신라의 세 가지 보물은 인위적인 사치에서 나온 것임	131

18	신라 경명왕 5년 후량 정명 4년 견훤 27년 궁예 18년 고려 태조 원년	신등안	고려 태조가 신라의 세 가지 보물을 물어 본 것은 잘못이며, 사신인 김율도 제대로 답하지 못하였음	132
19	신라 경순왕 9년 후량 청태 2년 견훤 44년 고려 태조 18년	신등안	신라는 예의의 나라가 되어 성대하게 되었으나 불법을 받들고 황음무도한 일이 많아 망하게 되었음. 경순왕이 태조에게 귀의함으로써 백성에 대한 덕이 크고 그 공덕이 오월을 송에 바친 錢叔보다 큼	139

\* 전체사론순번호는 총평을 포함하여 『동국통감』의 삼국까지의 전체 사론 140편을 번호 순으로 매긴 것임.

구체적인 탈락 이유를 일련번호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87)</sup>

1번 사론<sup>88)</sup>은 탈락되었다기보다 그 내용이 각주에 수용되어 있으므로<sup>89)</sup> 원 취지의 논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2번 사론<sup>90)</sup>은 홍여하가 기자는 주 무왕의 공격에 의해 의리상 신하가 될 수 없어 조선에 온 것으로 설정하고 있고, 또한 기자에 대한 사론

87) 사론의 탈락 이유를 다룬 글로는 김선화의 학위논문(『홍여하의 역사인식』, 한양대 대학원, 1987, 45-50쪽)이 있다. 그런데 김선화는 군주와 신하의 대립이라는 논리를 전제하고서 군주를 옹호(7, 8, 9, 16)하거나 명장을 부각(11, 13, 14)시키려는 의도를 제외 사유로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홍여하가 군신간의 대립 구도를 가지고 삼국의 역사를 보았는지는 의심스러우며, 오히려 성리학의 심화에 따른 경화된 역사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88) 『동국통감』 1, 21쪽.

89) 『동국통감제강』, 531쪽. “舊史云 東方初無君長 有神人 降于太白山檀木下 國人立爲君 是爲檀君 國號朝鮮 乃唐堯二十五年戊辰歲也 初都平壤 後徙都白嶽 至商武丁八年乙未 入阿斯達山爲神 史氏論曰 自堯戊辰 至商武丁八年乙未 洽千四十八年 唐虞三代人 君享國久長者 不過六七十年 豈有檀君獨能享千年之壽也 此或近之”

90) 『동국통감』 1, 22쪽.

이 많기 때문에 제외한 것으로 추정된다. 3번 사론<sup>91)</sup>도 삼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위치비정, 그리고 추가 사론을 수록하고 있는 홍여하의 입장에서 불필요하였을 것이다.

4번 사론<sup>92)</sup>과 5번 사론<sup>93)</sup>은 유교의 남녀 분별적 사고와 범례에서 언급한 황탄한 것은 제외한다는 원칙에 따라 홍여하는 이 사론을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는 노파를 방인으로, 오른쪽 갈빗대에서 여아를 낳았다는 것은 주변 사람이 거둔 것으로 수정하여 적고 있으며, 이성도 聖과 妃를 의미하는 嬪聖으로 수정하였다.<sup>94)</sup>

6번 사론<sup>95)</sup>은 권근이 유년 칭원을 적용하여 춘추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동국통감』에서 다시 즉위년 칭원을 적용하였는데, 홍여하는 『동국통감제강』에서 유년 칭원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동국통감』 신등안 사론을 삭제하고 대신 유년 칭원을 지지하는 자신의 사론을 추가하였다. 다만 사론의 내용은 매우 유사하며 칭원의 결론만 바뀐 것이다.<sup>96)</sup> 홍여하는 앞서 범례에서도 논의의 추이를 소개하면서 유년

91) 『동국통감』 1, 26쪽.

92) 『동국통감』 1, 28쪽.

93) 『동국통감』 1, 28쪽.

94) 『동국통감』 1, 28쪽. “立閼英爲妃 初龍見於閼英井 右脇生女兒 有老嫗異而養之 以井爲名 及長有德容 始祖納爲妃 有賢行能內輔 時人謂之二聖”

『동국통감제강』, 539쪽. “立閼英爲妃 初龍見於閼英井 旁人得女兒養之 以井爲名 及長有德容 始祖納爲妃 有賢行能內輔 人謂以聖嬪聖”

95) 『동국통감』 1, 38쪽.

96) 『동국통감』 1, 38쪽. “臣等按 國君嗣世踰年改元 乃禮之正 若改元於薨年 則是一年之內 國有二君也 漢儒惑於書序之文 乃以湯崩踰月爲太甲元年 蘇氏以爲崩年改元 亂世事也 胡氏蔡氏 亦辨之已詳 富軾反以漢儒之說 爲是何邪 權近史略 皆舊史踰年稱元 庶幾得春秋之義 然三國史上一千載間 編年紀事 例以薨年爲元 今若捨舊史從史略 則其紀事 頗有抵牾失實也 故因舊史而書之”

『동국통감제강』, 546쪽. “按國君嗣世 踰年改元乃禮之正 若改元於薨年 則是一年之內 國有二君也 漢儒惑於書序之文 乃以湯崩踰丹爲太甲元年 蘇氏以爲崩年改元 亂世事也 胡氏蔡氏亦辨之已詳 富軾反以漢儒之說 爲是何邪 權近史略 改舊史踰年稱元 庶幾得春秋之

칭원의 원칙을 제시하였다.<sup>97)</sup>

7번 사론<sup>98)</sup>과 8번 사론<sup>99)</sup>과 9번 사론<sup>100)</sup>과 10번 사론<sup>101)</sup>은 범례에서 언급하였던 誣妄하거나 음난한 것을 제외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흥여하는 무도하여 예에 어긋나거나 왕이 여인을 찾았다는 등의 내용이 수록된 사론들은 아예 제외하였다.

11번 사론<sup>102)</sup>은 안록산 반란군의 공격에 張巡이 睢陽을 지킨 것과 당 태종의 공격에 安市城主가 성을 지킨 것을 비교하여 인물의 경중을 다룬 『동국통감』 신동안 사론이다. 앞에 안시성주를 칭송하는 김부식의 사론이 있는데<sup>103)</sup> 다시 장순과 안시성주를 단순 비교하는 것에 흥여하는 공감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흥여하는 이를 대체하여 榮辱은 이름의 전함에 달려 있지 않다는 자신의 사론을 별도로 추가하였다.<sup>104)</sup>

12번 사론<sup>105)</sup>은 가속을 죽이고 출전한 계백에 대해 무도하였으며 광패하고 잔인함이 이와 같으니 싸우지 않고 스스로 꺾인 것이라고 비판하

義 而徐居正通鑑悉因舊史書之殊極無謂 爲人臣子而不通乎春秋之義者 必陷於纂弒之罪 此之謂也 今一依權近史略 紀年例改正云”

97) 『동국통감제강』, 529쪽. “一 國君嗣世 踰年改元 乃禮之正 金富軾三國史 皆以先君薨年改元 大失春秋之義 故權近史略 踰年稱元 以正其失 徐氏通鑑 既論斥富軾而強從之 其謬甚矣 今悉改正”

98) 『동국통감』 1, 48쪽.

99) 『동국통감』 1, 71쪽.

100) 『동국통감』 1, 81쪽.

101) 『동국통감』 1, 115쪽.

102) 『동국통감』 1, 160쪽.

103) 『동국통감』 1, 160쪽. “金富軾曰 唐太宗 聖明不世出之君 除難比於湯武 致理幾於成康 至於用兵之際 出奇無窮 所向無敵 而東征之役 敗於安市 則其城主 可謂豪傑非常者矣 而史失其姓名 與楊子所云 齊魯大臣 史失其名 無異 甚可惜也”

104) 『동국통감제강』, 641쪽. “按白巖城主孫大音 以降伏登名唐史 以安市城主 唐史無由記名 榮辱其係於名之傳否哉”

105) 『동국통감』 1, 176쪽.

였으며, 품일이 관창을 적진에 다시 들어가게 한 것에 대해서도 교훈이 될 수 없다고 평한 권근의 사론이다. 이 사론에 대해 『동국통감』 신등안 사론에서는 이와 반대로 계백의 충절을 칭송하고 있다.<sup>106)</sup> 홍여하는 이어지는 『동국통감』 신등안 사론에 권근 사론의 핵심적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또한 『동국통감』 신등안 사론을 지지하는 입장이므로 앞의 권근 사론을 수록하지 않았다.

13번 사론<sup>107)</sup>은 천개소문을 평하면서 잔혹하고 포악하며 스스로 방자하였다고 하면서도 도입부에서 非常한 才士라고 한 김부식의 평론<sup>108)</sup>에 대해 천개소문은 홍역일 뿐이며 才士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평한 『동국통감』 신등안 사론이다. 홍여하는 김부식 사론의 주된 요지가 천개소문의 방자함을 비판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才士 용어를 다룬 『동국통감』 신등안 사론은 불필요하다고 보아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14번 사론<sup>109)</sup>은 고구려의 멸망과 관련하여 스스로 취한 일이며 연개소문 사후 두 아들이 권력을 두고 다투어 망하게 되었다는 권근의 사론이다. 이 사론의 앞뒤로 김부식과 『동국통감』 신등안 사론이 있어 내용상 중복되어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106) 이것은 신라의 김흠운 전사 건과 함께 인물에 대한 평가에서 권근과 『동국통감』 신등안의 논리가 달라진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김흠운의 전사에 대해 권근은 경솔하게 적의 손에 죽었으니 뜻은 장렬하나 謀事는 부족하다고 평한 반면에 『동국통감』에서는 신라가 최종 승리하게 된 것은 인심과 세도가 순후하며 전쟁에서 진진하다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이를 칭송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동국통감』 1, 172쪽).

107) 『동국통감』 1, 192쪽.

108) 『동국통감』 1, 192쪽. “金富軾曰 宋神宗與王介甫論事曰 太宗伐高句麗 何以不克 介甫對曰 蓋蘇文非 常人也 然則蘇文亦才士也 而不能以直道奉國 殘暴自肆以至大逆 春秋君弑賊 不討 謂之國無人 而蘇文保要領以死於家 可謂幸而免者 男生獻誠雖有關於唐室 而以本國言之 未免爲叛人者矣”

109) 『동국통감』 1, 196쪽.

15번 사론<sup>110)</sup>은 김생의 필법이 신묘한 경지에 들어갔다는 것이 虛譽가 아니라 『동국통감』 신등안 사론으로, 번잡함을 없애기 위해 생략되었다. 16번 사론<sup>111)</sup>은 궁예의 흉악함에 대해 하늘이 穢德을 싫어하여 고려에 손을 빌려주었다는 『동국통감』 신등안 사론으로, 誣妄한 것은 제외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다.

17번 사론<sup>112)</sup>과 18번 사론<sup>113)</sup>은 신라의 조병 사신인 金律에게 고려 태조가 신라 三器의 존재를 하문하였는데 신라의 삼기는 인위적인 사치에서 나온 것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데에 필요하지 않다는 김부식의 사론과 삼기는 나라를 망하게 할 바탕이 될 뿐인데 고려 태조는 물건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실수를 하였고 김율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한 『동국통감』 신등안 사론을 제외하였다. 이는 삼기의 황탄함과 이어지는 사론의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9번 사론<sup>114)</sup>은 오월을 송에 바친 錢俶과 비교하면서 경순왕의 공덕이 크다고 평한 김부식의 사론<sup>115)</sup>에 대해 전적으로 그 공과를 논한 『동국통감』 신등안 사론이다. 사론의 요지는 경순왕이 선을 행하여 스스로 강해지도록 천시를 기다리거나 사직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여야 옳을 것인데 포로가 되어 복면하고 신하라 칭한 것은 절의를 잃은 것이며 김부식이 경순왕과 전씨가 대등하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복벌을 반대하는 신료에게 분노를 표시한 효종에게 마음의 수양을 강조하고, 伐胡는 시의에 맞지 않다고 말하는 등 복벌정책에 부정적이었던 흥여하의

110) 『동국통감』 1, 234쪽.

111) 『동국통감』 1, 269쪽.

112) 『동국통감』 1, 275쪽.

113) 『동국통감』 1, 276쪽.

114) 『동국통감』 1, 292쪽.

115) 『동국통감』 1, 290쪽.

입장<sup>116)</sup>에서는 끝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는 『동국통감』 신등 안 사론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sup>117)</sup>

이와 같이 생략된 사론류를 보면 해당 부분에 많은 내용을 보충하여 별도의 사론이 필요 없을 경우, 중복되는 내용의 사론이 연속하여 나올 경우, 수록할 만한 가치가 없을 정도로 내용이 번잡한 경우, 그리고 범례에서 언급하였듯이 誣妄하거나 음난한 것은 제외하였다. 특히 서술의 원칙이나 자신의 현실인식과 다른 사론은 아예 제외하였다. 인물에 대한 평가에서는 고려나 조선전기의 관점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사론을 제외하고 새로운 사론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사론에서의 일관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 2) 『동국통감제강』에 새로 추가된 사론

일련 번호	왕	집필자	내용	전체사론 순번호
1	은태사	홍여하 안	기자는 紂의 諸父가 옳은 듯함	1
2	은태사	홍여하 안	은태사가 동쪽으로 온 것은 주 무왕의 명에 따른 것이 아니며, 홍범을 말한 것도 조선을 다스린 이후임	2
3	은태사	홍여하 안	8조의 가르침은 문헌에서 징험하기 어려움	3

- 116) 한영우, 앞의 논문, 139쪽.  
우인수, 「목재 홍여하의 현실인식과 대응」, 『한국사상사학』 43, 한국사상사학회, 2013, 30-31쪽.
- 117) 김선화는 홍여하가 이를 제외한 것은 統에 대한 정립이 없었던 『동국통감』 찬자와의 견해 차이로 설명하였다(김선화, 「홍여하의 역사인식」, 한양대 대학원, 1987, 47쪽). 그러나 경순왕이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였다고 비판한 『동국통감』의 사론을 삭제한 것은 고려로의 정통 계승을 긍정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한 현실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4	은태사	한백겸 왓	기전유제의 존재와 모습	4
5	은태사	홍여하 안	태사는 주에 신하를 칭하지 않았으며 朝周하지 않았음	5
6	은태사	홍여하 안	공자가 송 선공에서 춘추를 시작한 것의 예에 따라 동국사를 은태사에서 시작함	6
7	기준왕	홍여하 안	왕을 처음 칭한 이는箕否의 선대임	7
8	기준왕	홍여하 안	만반한은 지금의 요양성	8
9	기준왕	홍여하 안	패수는 요양성 서요하 지금 八州의 땅임	9
10	기준왕	홍여하 안	위만은 왕검을 도움으로 하였는데 요동 함독현, 혹은 낙랑군 패수의 동쪽에 위치함	10
11	기준왕	홍여하 안	남쪽의 마한과 북쪽의 위만으로 나뉘어졌으나 기자 정통은 마한으로 이어짐	12
12	기준왕	한백겸 왓	삼한 땅 가운데 마한은 백제, 진한은 신라, 변한은 가야 지역으로 비정되며 이는 북쪽의 사군이부와는 분리됨	13
13	기준왕	홍여하 안	평양을 마한, 전라좌도는 변한으로 비정하고 최치원이 변한을 백제로, 권근이 평양을 변한으로 비정한은 잘못임	14
14	남해군	홍여하 안	군주의 계승에서는 유년개원이 예인데도 『동국통감』에서는 옛 책에 인습하여 그대로 따랐으니 권근의 사략에 따라 기년을 고쳤음	26
15	남해군	홍여하 안	처음에는 괴탄의 설이 없었을 것이나 나중에 사적이 명확해지지 않으면서 이러한 설이 나왔을 것이며, 나중에 금독금계의 설이 나왔는데 군자는 취신할 것이 없음	27
16	탈해왕	홍여하 안	김유신의 비 기사는 믿을 수 있으나 수로왕의 탄생 기록은 황탄하여 믿을 수 없음	36
17	내해왕	홍여하 안	동국이 삼분하자 중국도 역시 삼분하여 남북이 나뉘어졌고 이후 300년 뒤에 합하여 하나가 되자 동국도 역시 하나로 합해졌으니 동국의 분합은 중국도 그 始終을 같이 함	49

18	조분왕	홍여하 안	『삼국사기』 동천왕조의 잘못으로 첫째 위공을 산상왕으로 추정하였으나 위공은 동천왕이며, 둘째 관구검이 한 해에 東侵한 것으로 적고 있으나 두 해에 걸쳐 동침했으며, 이것은 동천왕이 첫 번째는 남옥저, 두 번째는 북옥저로 도망간 것을 말함	52
19	내물왕	홍여하 안	伊連은 釁의 아들이니 伐喪한 것을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니 양촌이 잘못 안 것임	64
20	선덕여주	홍여하 안	백암성주는 항복하여 唐使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으나 榮辱은 이름의 전함에 있지 않음	88
21	문성왕	홍여하 안	신라가 宗姓이 재상을 담당하면서 반역이 계속 일어나고 이적을 친 내용이 서적에 끊이지 않으니 이 화변은 모두 貴戚이 총애를 믿었거나 혹은 兪추의 의에 명확하지 못했기 때문임	126

\* 전체사론순번호는 총평을 포함하여 『동국통감제강』의 전체 142편 사론을 번호순으로 매긴 것임

21편의 추가된 사론을 살펴보면 일련번호 1-13이 모두 은태사에 대한 것인데, 이는 홍여하가 『동국통감』의 기자에 대한 설명에 불만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 뒤에 추가된 사론은 남해군, 탈해왕, 내해왕, 조분왕, 선덕여주, 문성왕에 그치고 있다.

은태사 부분은 명분과 정통에 대한 이념성이 강화되어 나타났다. 홍여하는 기사를 단순한 도덕적 구현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정치력을 가진 인물로 보고자 하는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 기자의 기술이 달라진 것이다. 1번, 2번, 3번, 5번, 6번, 7번 사론은 기자의 출신, 기자의 동천, 기자의 교화, 기자 조주 부정, 송과 기자와의 관계, 조선 후의 칭왕 등을 다루었는데 기자의 동천과 집권의 정당성을 보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sup>118)</sup> 8번, 9번, 10번, 11번, 13번 사론은 기자·위만·

118) 『동국통감제강』, 531-535쪽.

삼한의 위치 비정, 기자-마한 정통, 전·후 마한 등을 다루었는데 정통의 계승을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sup>119)</sup> 4번과 12번 사론에서 다른 한백겸의 기전유제와 삼한 설명은 기자와 삼한에 대한 자신의 논리를 보강하려는 의도에서 추가된 것이다.<sup>120)</sup>

14번 사론은 이전의 수록된 사론을 대체하여 들어간 것으로 청원 원칙이 바뀌어 관련 사항을 설명한 것이다.<sup>121)</sup>

15번 사론은 탈해가 계책을 써서 호공의 집을 차지하고 살게 되었는데 남해군이 그의 현명함을 듣고서 8년(한나라 왕망 初始 원년) 그의 장녀를 탈해에게 시집보냈다는 기록에 대한 사론이다. 흥여하는 난생설화는 동국 사람들이 중국의 난생을 듣고서 부회한 것이며, 초년에는 이러한 설조차 없었는데 怪誕한 설이 나와 사서에 수록되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탈해의 호공 집을 차지한 기사도 탈해가 多婆那國 사람이라면 조상이 신라인이라면서 소송하여 이길 수 있겠는가고 의문을 표시하였다. 흥여하는 金櫃金櫃의 설을 佛法과 幻技에서 나온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sup>122)</sup> 이는 탈해에 대한 『동국통감』과 구사(=

119) 『동국통감제강』, 535쪽.

120) 『동국통감제강』, 533, 537쪽.

121) 『동국통감제강』, 546쪽. “按國君嗣世 踰年改元乃禮之正 若改元於薨年 則是一年之內國有二君也 漢儒惑於書序之文 乃以湯崩踰丹爲太甲元年 蘇氏以爲崩年改元 亂世事也 胡氏蔡氏亦辨之已詳 富軾反以漢儒之說 爲是何邪 權近史略 改舊史踰年稱元 庶幾得春秋之義 而徐居正通鑑悉因舊史書之殊極無謂 爲人臣子而不通乎春秋之義者 必陷於篡弒之罪 此之謂也 今一依權近史略 紀年例改正云”

122) 『동국통감제강』, 547쪽. “按東史紀 赫居世高朱蒙昔氏首露之生 皆由卵化 歷考古帝王或有無人道而生者 安有無母有卵而墜在林薄之間哉 此必東人想慕箕子 聞殷商之時 有玄鳥墮卵之祥 故傳會爲此卵化之說 然赫居世之初年 則必無是說也 何者 民雖至愚 耳目所接 不敢欺誑 及其歲久 事蹟難明 然後怪誕之說 出焉 雖識理之君子 以其事關國祚禎祥 莫之敢攻破也 既而信者 益多 傳播一時 則史氏遂書之於冊 以爲故實 如王氏始祖龍女之說 國初無有也 至毅宗朝金寬毅始書之國史 故李益齋得辨其僞 新羅卵化之說 亦猶是也 舊史記言脫解 自多婆那國來 然脫解欲奪瓠公宅 潛埋礪炭于其側 訟于官稱其祖治匠之居

『삼국유사』에 보이는 괴탄함을 비판한 것이다. 16번 사론은 65년(한나라 명제 영평 8년) 을축년 알지의 탄생 설화와 관련하여 간사한 사람이 아들을 신이하게 만들어 후사로 만들어 나라를 차지하려고 한 것이라는 비판한 권근의 사론<sup>123)</sup>을 이어 그 황탄함을 비판한 것이다. 홍여하는 수로와 알지의 탄생 설화는 믿을 수 없으며, 권근이 말한 바와 같이 간사한 사람이 술책으로 나라를 훔쳤다면 일시적으로는 있을 수 있으나 향국의 장구함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sup>124)</sup> 이 두 사론은 황탄한 기사의 발생 연유를 유교적 합리성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표착과 난생 설화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17번 사론은 동한 초에 동국이 삼분하자 중국도 삼분하고 남북이 나뉘어진지 300여 년 뒤에 합쳐지자 동국도 합하여 하나가 되어 동국과 중국의 분음이 서로 처음과 끝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sup>125)</sup> 20번 사론은 당의 침입에 항복한 백암성주 孫大音의 이름은 사서에 남았으나 안시성주는 남지 않았는데 영육은 이름이 전하고 전하지 않는 데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sup>126)</sup> 21번 사론은 신라에서 宗姓이 재상을 담당하면서 반역이 계속 일어나고 이적을 친 내용이 서적에 끊이지 않으니 이 화변은 모두 貴戚을 총해하였거나 혹은 춘추의 의에 명확하지 못한 데서 연유한 것이라는 주

掘地 以驗 果得礪炭 昔脫解果爲多婆那國人 則豈稱其祖爲新羅之人而訟因得理哉 誕妄之說 不攻自破矣 至於金櫃金櫃之說 乃自佛法幻技中粧撰得出格致 君子宜無取信焉

123) 『동국통감제강』, 557쪽.

124) 『동국통감제강』, 557쪽. “按金庾信碑云 庾信少吳金天之後 故爲金氏 又曰與新羅同姓 蓋秦民數萬流入辰韓 其中固多賢聖胄裔 意者少昊之後 亦隨而東來 因遂蕃昌 爲新羅駕洛開國之祖歟 首露閔智之誕 所記荒謬 不足信也 若如權陽村說姦人逞術竊國 一時則有之矣 至如享國長久本支千億 非天啓之曷克臻是哉”

125) 『동국통감제강』, 572쪽. “按自東漢初 東國三分 至是中國亦三分 南北分王三百年而後 合爲一 是時東國亦合爲一 大抵東國分合與中國相終始”

126) 『동국통감제강』, 641쪽. “按白巖城主孫大音 以降伏登名唐史 以安市城主 唐史無由記名 榮辱其係於名之傳否哉”

장이다.<sup>127)</sup> 이러한 사론들은 인물과 일의 성패를 義·不義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흥여하의 도덕관에 따라 비평된 것들이다.

18번 사론과 19번 사론은 사실을 고증한 사론이다. 18번 사론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의 동천왕 기사에 대한 비판이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살펴보면 동천왕 때의 2개 기사를 잘못 적었다. 「위서」에 이르기를 “고구려 태조왕 궁은 나면서부터 눈을 뜨고 볼 수 있었다. 지금의 왕도 태조의 증손으로 역시 나면서부터 태조처럼 볼 수 있다. 고구려에서는 서로 비슷한 것을 ‘位’라고 하였으므로 이름을 위궁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관노부 여자와 간통하여 위궁을 낳았다”고 하였다. 이는 주통촌 여자의 소생을 가르킨다. 동천왕은 태조의 증손으로 삼대를 지났으며 「위서」에서 증손이라고 하였으므로 위궁은 동천왕임이 명백하다. 김부식이 위궁을 연우라고 하였는데 연우는 태조의 조카이니 어찌 증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잘못이다. <관구검진>에 정시 중에 관구검이 현도도를 지나 고구려를 토벌하였는데 위궁이 처자를 데리고 도망가자 관구검이 군사를 이끌고 돌아왔다. 6년에는 다시 정벌하자 궁이 매구로 도망갔다. 이에 검은 왕기를 보내어 추적하였다고 하므로 이는 두 해의 일이다. 그러나 『삼국사기』에서는 합하여 한 해의 일로 하였다. 또 <동이전>에서 살펴보면 고구려왕이 검은 왕기에 의해 패하였을 때는 남옥저로 도망가고, 그 후 왕기에 쫓겼을 때는 북옥저로 도망갔으며 왕기는 숙신의 남쪽 지역까지 추격하였다고 하는데 <관구검진>의 기록과 서로 일치한다. 김부식은 동천왕이 처음 패하였을 때 鴨綠으로 도망가고 두 번째 패하였을 때는 南沃沮로 도망갔다고 하였다. 이것이 두 번째 잘못이다. 김부식의 책은 고구려말 이문진이 후일에 기록한 기사에 근거하였으므로 어그러지고 그릇된 점이 많으며, 서거정의 『동국통감』도 역시 살펴 고치지 않았다. 지금 옛 글을 함부로 고칠 수 없어 대략 「위서」를 근거로 변경해두고자 한다.<sup>128)</sup>

127) 『동국통감제강』, 700쪽. “按新羅以宗姓爲卿 逆節屢起相繼 誅夷史不絶書跡 其禍變皆因貴戚 或恃寵積勢 計出圖全 或意欲既滿 漸生覬覦 抑以海隅朴略 氓俗蠢蚩 不明於春秋之義 而然歟”

128) 『동국통감제강』, 576쪽. “按金富軾三國史 誤記東川王事二條 魏書云 句麗太祖王宮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중국의 『북사』 등에서 산상왕 연우를 위궁에 비정하였는데, 홍여하는 태조의 증손이라는 『위서』의 기록과 관노부 여자와 사통하여 낳았다는 기록을 취하여 동천왕에 비정하였다.<sup>129)</sup> 또한 『삼국사기』에서는 246년 관구검의 침입에 따른 동천왕의 패배와 8월에는 압록으로, 10월에는 남옥저로 도망간 사건이 한 해 내에 있었던 일로 적고 있으나, 홍여하는 『삼국지』 「위서」 〈관구검전〉의 기사와 〈동이전〉 기사를 통해 정시 5년과 정시 6년 두 해에 일어난 기사로 보았다. 또한 도망한 장소도 남옥저와 북옥저, 매구와 숙신남계로 비정하였다.<sup>130)</sup>

19번 사론은 고구려왕인 伊連이薨하고 태자 談德이 즉위하자 喪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벌인 것을 권근이 비판하였는데<sup>131)</sup> 홍여하는 백

---

生而開目 能視 今王太祖曾孫 亦生而能視似太祖 句麗呼相似爲位 故名位宮 又云淫灌奴部而生位宮 指其爲酒桶村女所生也 東川於太祖爲從孫而繼序三代 故魏史以爲曾孫 位宮之爲東川審矣 富軾乃以位宮爲延優 延優太祖之姪 豈可謂之曾孫乎 此一誤也 母丘儉傳 正始中 儉出玄菟道 討句麗 位宮將妻子逃竄 儉引軍還 六年復征之 宮奔買溝 儉遣王頊追之 蓋兩年事也 麗史合爲一年 又以東夷傳攷之 麗王爲儉追敗時 奔南沃沮 其後爲王頊追逼 奔北沃沮 頊追至肅慎南界 與母丘儉傳相符 富軾乃以東川初敗時 奔鴨綠 再敗時 奔南沃沮 此二誤也 蓋富軾史據麗末李文眞追撰記事 固多舛謬 而徐氏通鑑亦不攷正 今不敢輒改舊文 而略據魏書辨訂云”

129) 안정복은 『동사강목』에서 산상왕 연우를 위궁으로 보았던 『삼국사기』를 기사를 취하지 않는다는 고이를 남기고 있다(『동사강목』 부록 상권상, 「고이」, 〈延優一名位宮〉).

130) 동천왕 때 관구검의 침입 기사는 현대 한국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246년(정시 7) 한 해에 있었던 사건으로 볼 수 있으나, 「위지」 〈관구검전〉·〈고구려전〉 등 중국 자료에서는 244년(정시 5)과 245년(정시 6)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1906년 집안현에서 〈母丘儉紀功碑〉가 발견되었는데 王國維, 池內宏 등의 연구에 따라 관구검의 동침이 정시 5년과 정시 6년 두 해에 있었던 것으로 대체로 정리하고 있다. 홍여하는 전통시대 역사 연구에서 현대 역사학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관구검의 침입에 대해 두 해 침입설을 처음으로 주장하고 있다. 안정복도 『동사강목』에서 홍여하의 주장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고이를 남기고 있다(『동사강목』 부록 상권상, 「고이」, 〈三國史記母丘儉東侵之誤〉).

131) 『동국통감제강』, 592쪽.

제와의 싸움에서 전사한 고국원왕 釗의 뒤를 소수림왕 丘夫와 그 동생인 고국양왕 伊連이 차례로 즉위하였고 伊連은 釗의 아들이므로 광개토왕 담덕이 喪 중에 원수를 갚기 위해 백제를 정벌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sup>132)</sup>

추가된 사론들을 보면 기자와 주 무왕의 관계를 군신이 아니라 손님과 주인의 관계로 격상시키고 기자를 독립적인 교화를 베푼 인물로 설명하여 조선에서의 중화 문화의 탄생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조선과 중국의 역사 전개와 동질성을 통해 현재 조선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표착, 난생 등 유교적 관점에서 황탄하다고 여겨지는 사항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한편 동천왕 위궁과 관구검의 침략, 고국양왕 伊連과 고국원왕 釗의 관계 등 기사에서는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론의 추가에는 흥여하가 체득하였던 춘추·정통·도덕·윤리적 논리가 바탕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IV. 맺음말 - 사학사적 의의 -

洪汝河(1620-1674)의 손자인 홍대구는 『동국통감제강』이 가지는 학문적 성과를 간략하지만 핵심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임자년 북천에서 울리로 돌아왔다. 『동국통감』을 취하여 빈쇄한 것을 산삭하고 중심이 되는 줄기를 정돈하여 동사제강이라고 이름하였다. 범례를 만들었는데 휘찬여사의 범례와 거의 같다. 중국의 역사를 덧붙여 적은 것은 역사의 서술 체제를 중시함이다. 기자로부터 시작한 것은 사마천의 黃帝로부

132) 『동국통감제강』, 592쪽. “按伊連 釗之子也 豈可以伐喪爲非 陽村誤矣”

터 시작한 예를 따른 것이다. 공자가 춘추를 만들었음을 적은 것은 사마천의 예를 따른 것이다. 기준과 신라 정통으로 높인 것은 정통을 엄격하게 한 것이다. 게다가 여러 나라의 시말, 국도의 변천, 성읍의 착란, 산천의 근원, 발해·요·금의 오경에 이르기까지 본사의 선유들의 설에 근거하여 확정하였다. 한·위·당·송의 지의 내용을 끌어다 자료로 삼았다. 수천 리의 강역, 수천 년의 사적을 상세히 살피고 적지 않은 바가 없다. 또 정전과 삼한 사군을 논하면서 한백겸의 견해를 취하였지만 마한이 다시 평양으로 돌아간 것을 알지 못한 것을 병통으로 여겼다. 변한을 논하면서 권근의 오류를 깊이 논하였다. 유년기원을 취한 것은 춘추에 합치되는 것으로 이것도 역시 작은 것을 드러내어 깊은 뜻을 나타내려는 뜻이다.<sup>133)</sup>

즉 중국의 역사를 덧붙인 점, 동국사를 기자에서 시작한 점, 신라 정통을 높인 점, 여러 나라의 역사와 지리의 변천을 해명한 점, 중국의 자료를 활용한 점, 유년기원을 취한 점 등을 『동국통감제강』의 특징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 소개는 홍여하가 가졌던 문제의식과 그 성과를 핵심적으로 요약하여 적시한 것이다.

한편 홍여하에게 역사학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 이로는 권문해, 권별 부자를 들 수 있다. 홍여하는 1670년 권별의 부친인 권문해가 편찬한 『대동운부군옥』에 『해동잡록』의 발문을 붙여 놓았다.<sup>134)</sup> 또한 권별의 역사인식은 홍여하의 『동국통감제강』의 편찬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고

133) 『목재선생문집』 권11, 「부록」, 〈贈通政大夫弘文館副提學知製教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行通訓大夫司諫院司諫府君行狀〉. “壬子 自福泉 還栗里 又取東國通鑑 刪其煩亂 整頓綱維 名曰東史提綱 亦爲凡例 與麗史凡例 大同小異 記中國之事 存史體也 起自箕子 依遷史黃帝例也 書孔子作春秋 依遷史舊例也 尊箕準主新羅 嚴正統也 至於諸國之始末 國都之變遷 城邑之錯置 山川之源委 渤海遼金之五京 或據本史先儒之說而定之 或援漢魏唐宋之志而質之 數千里之疆域 數千年之事蹟 無不詳考謹述 若指掌焉 且論井田及三韓四郡 則取韓久庵之博雅 而猶病其不知馬韓之復還平壤也 論弁韓 則深斥權陽村之謬 而又取其踰年紀元 合於春秋也 此又微顯闡幽之意也”

134) 홍여하, 「附海東雜錄跋」, 『대동운부군옥』, 3쪽. “竹所公撰述事蹟 詳跋文中 此係先生家學 繼述淵源之書 不可使無傳於後 姑附此文於韻玉書跋文之後 以識之云”

있다.<sup>135)</sup>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은 홍여하와 친분이 깊었던 친우들이 모두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는 점이다. 이들은 주로 상주 일원에서 동시기에 활동하였던 학자들이었다. 그 가운데 역사에 관심을 가진 인물로 활재 이구, 무침재 정도응을 들 수 있다. 鄭道應(1618-1667)은 우리나라 인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명신들의 행적을 정리한 『昭代名臣行蹟』을 저술하였으며, 또한 최초의 총서 형식의 야사인 『昭代粹言』을 편찬하였다. 李槩(1613-1654)도 중국사에 대한 사론 전문 저술인 『看史剩語』를 남기고 있다.<sup>136)</sup> 이들의 문집을 보면 서로 상대방이 진행하고 있었던 역사편찬 작업을 잘 알고 있었으며, 서간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남아 있다.<sup>137)</sup>

그런데 이들이 살았던 시기는 오랑캐였던 여진족이 흥기하여 병자호란으로 이어지고 명·청이 교체되어 전통적인 화이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던 때였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역사에서 자신의

135) 홍여하가 1670년 『해동잡록』의 발문을 적으면서 동방 史學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칭송하고 있는 점(홍여하, 『木齋先生文集』 권6, 「跋」, 〈竹所權公海東雜錄後跋〉 및 「附海東雜錄跋」, 『대동운부군옥』, 3쪽. “草澗之胤子竹所公 卽其書 拈出事要 繫之姓下 補以他書 條例精瞻 名以海東雜錄 其事實 時有出於史乘之外者 積成累十秩 公方大耋間燕 杜門靡客 披閱是書不少休 夫陰竹壘序其子復春韻府時 蓋年八十四歲矣 今竹所公人地事爲壽年 大約相符 似非偶然者 然此書實有補於東方之史學 豈特陰氏父子區區纂緝月露而止哉 上章閣茂三月日 南川洪某書”), 권별이 편찬한 『해동잡록』에서 보이는 기자-마한 정통론이 『동국통감제강』에서 확연하게 정립된 점 등을 근거로 들 수 있다. 권별의 『해동잡록』에 대해서는 박인호, 「해동잡록에 나타난 권별의 역사인식」, 『퇴계학과 유교문화』 52, 경북대 퇴계연구소, 2013, 83-118쪽 참조.

136) 박인호, 「활재 이구의 역사인식과 현실비판」, 『조선사연구』 22, 조선사연구회, 2013, 141-169쪽 참조.

137) 정도응과 홍여하 관련 논의 내용은 다음을 참조. 鄭道應, 『무침재선생문집』 권1, 「시」, 〈黃宜寧不換亭 次洪伯源韻〉, 〈次洪伯源汝河 贈韻〉. 洪汝河, 『목재선생문집』 권4, 「書」, 〈答鄭鳳輝〉, 〈與鄭鳳輝〉. 이구와 홍여하 관련 논의 내용은 다음을 참조. 李槩, 『활재집』 권2, 「書」, 〈答洪伯源 別紙三〉. 洪汝河, 『목재선생문집』 권4, 「書」, 〈答李大方策〉.

생각과 행동의 명분을 찾으려고 하였다. 정도응은 인물과 야사, 홍여하는 한국사, 이구는 중국사에 관심을 가지면서 역사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16세기를 전후로 하여 사람들이 역사 편찬의 주역으로 등장하면서 주로 사략형의 사서를 편찬하였는데 특히 1592년에서 1598년까지 이어진 왜란은 이들이 편찬한 사서의 내용에서 충성과 절의와 같은 관념이 강조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홍여하를 비롯하여 정도응, 이구 등은 1623년 인조반정, 1627년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 등을 경험하면서 역사에서 춘추와 강목의 정신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춘추의 서법에 따른 기술을 통해 포폄을 보이려고 하였다. 이들의 역사편찬 작업은 이러한 시대의 소산이었다.

한편 『동국통감제강』이 유통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파악하는 자료로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을 보았다. 일찍이 龍洲 趙綱(1586-1669)은 『동사제강』과 『휘찬여사』를 史家の 서적으로 극찬한 바 있다.<sup>138)</sup> 병곡 권구(1672-1749)도 홍여하의 사서를 敦史라고 칭송하였다.<sup>139)</sup> 특히 『동국통감제강』에 대해서는 조천경(1695-1776)이 『이안당문집』에 『동사제강』을 읽고서 일어난 감흥을 시로 적어 놓았다.<sup>140)</sup> 이종주(1753-1818)도 『북정집』에 이 책을 읽고서 지은 37편의 시문을 남기고 있다.<sup>141)</sup>

현재 각 도서관에 목판본으로 간행된 『동국통감제강』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18세기 후반에는 널리 이 책이 유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38) 權明佑, 『可齋集』, 『通近岳書院文(代屏山士林作)』.

139) 權渠, 『屏谷集』 권6, 『雜著』, 〈麗史彙纂疑義〉.

140) 趙天經, 『易安堂文集』 권3, 『詩』, 〈奉翫東史提綱〉. “不觀東國史 何異面牆人 千古興亡事 瞭然如隔晨” 조천경은 홍여하를 백세의 스승(“缶林有喬木 桑海茁高枝 無住中興祖 木齋百世師” 『易安堂文集』 권3, 『輓』, 〈輓洪上舍國章〉)으로 존송하고 있다.

141) 李宗周, 『北亭集』 권1, 『시』, 〈讀東史有感〉. 이종주는 홍여하의 『동국통감제강』을 좋은 역사책이라고 평하였다.

다만 과도하게 도덕적 측면에서 접근한 정통관과 이에 입각한 춘추 서법의 적용은 그 이념성으로 인해 우리가 대상이 된 시대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사실을 밝히는 자료로서는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흥여하가 활동하던 시기의 사상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사학사적 연구의 대상으로는 여전히 큰 의미가 남아 있다.

### 【 참고문헌 】

『可齋集』, 『葛庵集』, 『大東韻府群玉』, 『東國通鑑提綱』, 『東國通鑑』, 『東史綱目』, 『蘆洲集』, 『木齋集』, 『無添齋集』, 『屏谷集』, 『北亭集』, 『易安堂文集』, 『存齋集』, 『海東雜錄』, 『活齋集』, 『彙纂麗史』.

- 김신화, 「흥여하의 역사인식」,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1-59쪽.
- 박인호, 「전통시대의 고구려·발해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374쪽.
- 박인호, 「전통시대의 백제인식 - 백제의 흥망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역사교육논집』 46, 역사교육학회, 2011, 257쪽.
- 박인호, 「전통시대의 신라인식」, 『역사교육논집』 40, 역사교육학회, 2008, 338-339쪽.
- 박인호, 「조선전기 지리서에 나타난 역사지리인식과 특성」, 『조선사연구』 10, 조선사연구회, 2001; 『조선시기 역사가와 역사지리인식』, 이회문화사, 2003, 115-141쪽.
- 박인호, 「해동잡록에 나타난 권벌의 역사인식」, 『퇴계학과 유교문화』 52, 경북대 퇴계연구소, 2013, 83-118쪽.
- 박인호, 「활계 이구의 역사인식과 현실비판」, 『조선사연구』 22, 조선사연구회, 2013, 141-169쪽.
- 우인수, 「목재 흥여하의 현실인식과 대응」, 『한국사상사학』 43, 한국사상사학회,

2013, 30-31쪽.

- 장윤석, 「17세기 영남 남인 오운과 홍여하의 역사인식」,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1-45쪽.
- 한영우, 「17세기 중엽 영남남인의 역사서술 - 홍여하의 휘찬여사와 동국통감제강」, 『변태섭박사 화갑기념 사학논총』, 삼영사, 1985; 『조선후기사학사연구』, 일지사, 1989, 135-158쪽.
- 한영우, 『조선전기 사학사 연구』, 서울대출판부, 1981, 53-59쪽.

中文摘要

## 《东国通鉴提纲》里所反映的洪汝河的历史认识

朴仁镐

洪汝河(1620-1674)的《东国通鉴提纲》，是一部以编年形式根据纲目精神而编撰的历史书，叙述了自从箕子朝鲜到同一新罗时代的历史。叙述方式上，洪汝河试图了大量运用春秋笔法。同时，为了继承《春秋》的记述传统，他还叙述了中国历代王朝的兴亡、帝王的逝去、日食等。这样朝鲜历史能具备与中国历史同样的叙述体制。不仅如此，他立足于儒家观来一贯坚持逾年称元原则，并排除了诞妄的事实。从这个意义上，洪汝河的工作不仅是停留在《东国通鉴》的简略，而是从坚持着一贯的思想指导下整理上古史。

朝鲜初期编撰的《东国史略》与《东国通鉴》树立了檀君-箕子-卫满-四郡-二府-三韩-三国系统的上古史体系。但洪汝河将它改为箕子-马韩-新罗体系，以新罗为正统。关于地名问题，他根据地名移动说来说明史料里出现的地名的混淆。即他认为箕子与卫满，以及真番的疆域范围延伸到了辽东地区。其结果，高句丽、新罗、伽倻的历史疆域也被扩大。

与《东国通鉴》比较，《东国通鉴提纲》的史论中能发现一贯性的增强。具体看，他主张箕子与周武王是宾主关系，而不是主客关系。据此，他还强调在朝鲜中华文化的诞生，并进一步表示对当日朝鲜文化的自豪感。同时，他从儒家的角度上，认为漂着、卵生是虚构的，因此对此予以批评。另一方面，他还订正了有些历史事实的错误，这里包括东川王位宫与毋丘俭的侵略、故国壤王伊连与故国原王俭的关系问题。总之，通过上述的分析，我们得知史论的思想基础是洪汝河尊崇的春秋、正统、道德、伦理的逻辑。

## 关键词

洪汝河、《东国通鉴提纲》、《汇撰丽史》、殷太师、马韩-新罗正统论、地名移动说、宾主关系、春秋笔法。

· 논문투고일 : 2014.1.15 심사완료일 : 2014.2.6 게재결정일 : 2014.2.14